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21-01

국립국어원 2014-01-17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머 리 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 나라 안에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 공용어로 쓰일 수 있는 언어가 득세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매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위세어로서의 지위를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위세어는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넘어서 작은 언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세어가 일상생활에도 잠식하여 각 민족 고유의 언어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급증으로 언어 공동체마다 다문화 문제가 대두되어 공동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날 전 세계 언어 공동체마다 언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네스코는 2002년 세계 모어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사멸 위기 언어 지도’ 보고서에서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도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생태계의 또 다른 붕괴로 보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나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 사용자의 예술과 기술을 포함하여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곧, 언어는 문화의 기념비이자 살아 있는 박물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류의 풍부한 문화 창조를 위해 세계 각국이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10년부터 격년으로 세계 우수 국가의 언어 정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으며, 2012년에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 대회의 성과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 기꺼이 참석하여 발표해 주시고, 소중한 원고를 이 책에 다시 신도록 허락해 주신 기조연설자 로버트 필립슨 교수님과 국내외 언어정책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이 논문집을 통해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민족어를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어떤 언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살펴 보면서, 위세어와 민족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립국어원 원장 민 현 식

차 례

- 언어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단과 저항 1
로버트 필립슨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전략의 방향 - 전략 방식의 원리와 구조 - 25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위원회)

- 세계화 시대의 헝가리어 35
터마시 바러디 (헝가리,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 위협받는 언어들: 아프리카 토착어의 보존 55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 보호	71
수기요노 (인도네시아, 언어 발전 진흥 기구)	
● 한국의 언어 보존 정책 - 역사와 과제 -	85
김세중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 핀란드의 자국어 보호와 진흥	97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핀란드, 핀란드 언어원)	
●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로서의 국어	117
스카코프 마하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 국제 학술 대회 사진	131



언어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단과 저항

로버트 필립슨 Robert Phillipson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언어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단과 저항

로버트 필립슨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원칙과 과제
- 역사와 개념 사이
- 언어제국주의의 확산
- 언어 교육학: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신언어제국주의
- 언어제국주의와 저항 사이의 지속적 갈등

이러한 문제를 한국의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국주의자의 담론과 이에 대한 반응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영국과 미국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고하게 되었다. 언어를 통제하는 권력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보다 훨씬 권위적인 것이다. 미래의 제국은 정신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것이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941, 1943¹⁾

전 세계는 미국의 체제를 채택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 체제가 세계 체제가 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947²⁾

1) 1941: 하원, Morton, 1943에서 인용. 1943: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명예 학위를 받을 때.
2) Pieterse 2004, 131에서 인용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태도는 신식민주의와 인종주의가 팽배한 미국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강하고 발전되었으며 아름다운 곳으로 상정하고 그에 반해 한국은 그 반대 이미지, 즉 약하고 낙후되며 열등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영어에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영어를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어 능력이 계층을 구분하는 표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박성열 조지프(*Joseph Sung-Yul Park*), 2012, 214

영국식 교육의 목적은 혈통과 피부색은 인도인이지만, 영국식 취향과 견해, 도덕성, 지성을 갖춘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토마스 바빙턴 매클리(*Thomas Babington Macaulay*), 1835

영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어의 노예로 만들게 된다. 매클리(*Macaulay*)가 확립한 교육의 기초는 우리를 영어의 노예로 만들었다.

인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잘못된 믿음은, 자유에 대한 사상을 흡수하고 사고의 정확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영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영어는 국제 무역 언어이고, 외교 언어이며, 풍부한 문학의 보고이자, 서구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들 중 일부에게 있어서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 오늘날 영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빼앗았고 우리의 모어를 몰아냈다. 이 부자연스러움은 영국과 우리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³⁾, 1909, 1921

영어 대화의 세계는 인종 차별적이다. 급여 체계와 고용 관행, 광고에 있어서도 인종 차별적이다. 그리고 교과서와 교실에서 주입된, 모어 사용자는 대부분 영어리라는 사상 역시 인종 차별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지배 언어인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더글러스 루미스(*Douglas Loumis*), 1977, 7, 24.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원칙과 과제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언어가 국제적으로 군림하는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지배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국(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언어 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럽 언어들이 어떻게 해당 지역의 언어를 소멸시키면서 유럽 외의 대륙에 정착되었는가? 식민 정책을

3) *Gandhi*(2010) 참조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전파된 언어들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유용한 유대를 형성하고 국가 내적인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외와 착취를 지속시킴으로써 서구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계화된 세상에서 영어는 영미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이용자들의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보다 더 공평한 수단이 되었는가? 아니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과 군사 지배 및 신자유주의 경제가 유일한 제국주의적 언어를 보다 공고히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구성하게 하는가? 한편 영어 교사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영국과 미국의 산업은 아시아의 영어 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적합한 처사인가, 아니면 언어학적, 교육학적, 문화적으로 적절치 못한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사업일 뿐인가? 국제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의 국제적 전파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제국주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한국의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국제 언어에 대한 유창성을 제고하면서도 한국어의 생명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영어의 팽창을 고려할 때, 영어와 모국어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있는가? 언어 정책, 언어 관리, 언어 교육에 대한 수많은 연구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 있는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려는 광풍(영어 열풍, Park 2012, 208)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강박 관념에 가까운 현상이 존재하는가? 이 강박 관념의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적, 이념적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매우 중요한 이 문제가, 맹렬히 공격받아야 하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언어 정책이 국가적인 요구와 다양한 국제적 요구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언어제국주의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를 탐구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분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원리는 언어제국주의를 언어 차별(linguicism, Skutnabb-Kangas 1988, 13)의 변종으로 설명하는데, 언어 차별은 사회 구조와 사상을 통해서 기능하며 특정 언어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라는 개념을 내포한다. 언어제국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의한다(Phillipson 1992, 2009).

- 언어제국주의는 문화, 교육, 매체, 의사소통, 경제, 정치, 군사 활동의 제국주의적인 구조와 맞물려 있다.
- 본질적으로 언어제국주의는 착취, 불공정, 불평등, 계층의 개념을 포함하며, 지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특권이 주어진다.
- 좀 더 많은 자원과 기반 시설이 지배적인 언어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언어제국주의는 구조적 문제이다.
- 신념, 태도 그리고 형상화를 통해 지배 언어를 미화하고, 다른 것들에 오명을 씌우고 언어적

- 계급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언어제국주의는 이념적이다.
- 지배는 패권적(hegemonic)이며, 언어제국주의가 내면화됨으로써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언어제국주의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 언어 사용은 종종 퇴보적(subtractive)이 되며, 교육을 통해서 지배 언어의 유창성을 제고하는 것은 다른 언어의 희생을 통한 강화와 관련이 있다.
- 언어제국주의는 인종 차별, 성 차별 그리고 계급을 통한 사회적 구조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 언어를 편애하는 언어 차별의 일종이다. 언어 차별은 지배 언어의 표준 형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수요와 공급, 추진과 유인의 요인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배후에는 행위자(정책 집행자)들과 기관들이 있다.
- 언어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과거 300년에 걸쳐서 발전시킨 양식의 일면이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에 대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투입한 언어 자본의 투자량과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언어제국주의는 항상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고 저항을 받는다.

언어제국주의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자리를 잡았는지의 여부는 실증적 문제인데, 그것을 밝히 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들을 조사하고 위에 언급된 여러 변수를 참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다양한 층위에서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층위에서는, 영어 같은 지배적인 언어 사용자와 다른 언어 화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개별 국가의 층위에서는 지배적인 공용어와 소수 언어 사이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국가보다 작은 집단 층위에서는 회사나 대학과 같은 기관의 언어 정책 관련 쟁점이나 원칙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정책이 명시적이나 암시적이냐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다. 권력이 특정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핵심적 사실과 이를 사회 정의의 역동적인 측면이라고 인식하는 태도가 이 모든 문제들에 스며들어 있다.

어떤 언어가 선의의 목적으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영어나 다른 어떤 제국주의적인 언어를 악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영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언어이고, 따라서 필자의 목적은 영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영어 사용과 학습량의 증가가 다른 언어나 그 언어 사용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언어의 계층화는 전형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특정 언어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작용한다. 지배 언어는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폐쇄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려면 언어 정책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역사와 개념 사이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피지배 국민과 영토에 대한 지배 권력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통제력을 의미하는 라틴어 ‘*imperium*’에서 유래하였다.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군사력과 상업 활동, 그리고 기독교 선교 활동이 결합하여 서구의 문화적 행동 양식과 교육 제도 및 언어의 이식이 용이해졌다. 오늘날 무엇인가를 제국주의적 또는 식민주의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거의 항상 내재적으로 그것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Howe 2002, 9). 그래서 제국주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에 걸쳐 있던 로마 제국에서, 정복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전략은 이미 2000년 전에 통찰력 있게 분석된 바 있다(Tacitus 1948, 72).

라틴어를 거부하는 대신에 그것을 구사하려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의상도 환영을 받아 토가(toga)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점차적으로 오락 시설, 예를 들어 회랑, 목욕탕, 호화로운 연회와 같은 것들을 미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것을 ‘문명화’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은 노예화의 한 특징일 뿐이었다.

식민지 경영을 위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찍이 인식되었다.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Isabella) 여왕은 ‘해외 정복 수단, 본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언어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카스티야어(Castilian)를 확립하는 계획을 제안 받았는데, 작가인 안토니오 데네브리하(Antonio de Nebrija)는 언어는 언제나 제국의 배우자였고 영원히 그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Illich 1981, 34-35). 언어는 국내 교육 체제의 표준이자 사회 통제의 수단이었으며, 다른 지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어가 유럽에서 세속적인(비종교적인) 용도로 국제어가 되었을 때, 특정 언어의 본질적인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베를린 학회(The Academy of Berlin)는 1782년에 왜 프랑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로 대회를 열었다. 입선 논문은 프랑스어의 구문론을 따르지 않는 언어는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언어학 지식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반면 대중문화에는 일부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언어 계층의 유지는 전형적으로 피지배 언어(단순한 방언, 토착어)에 오명 씌우기, 지배 언어에 대한 미화(우월한 명료성, 풍부한 어휘),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리화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데, 이는 언제나 지배 언어의 이익(우월한 문화와 ‘진전’으로의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그리스어가 아닌 언어의 사용자들을 ‘미개인(barbarian)’이라고 낙인찍었는데, 이는 언어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웰시(Welsh)’라는 용어는 영어 사용자들이 스스로 ‘킴리(Cymry)’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고대 영어에서 ‘*Welsh*’는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의 언어 관점에서 지배 집단과 구별해 낙인을 찍은 부류를 의미한다. 지배 언어는 신의 언어(산스크리트어, 이슬람 세계의 아랍어,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어), 이성과 논리와 인권의 언어(프랑스 혁명 전후의 프랑스어), 종족-민족 집단의 언어(나치 이념에서 독일어), 발전과 근대성과 국가 통합의 언어(식민지 독립 후의 영어)로 구분된다. 다른 언어들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이러한 기능과 특징을 박탈당했다.

식민지 정부는 유럽 언어에 유리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 언어학과 프랑스의 식민지 조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어가 언어적 만행, 곧 *glottophagie*(Calvet 1974)를 통해서 다른 언어를 어떻게 소멸시켰는지를 입증해 준다. 언어적 계층화는 오늘날 영어의 세계적 지배를 찬양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종 차별과 나란히 식민지 경영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상당히 중요시되었다(Phillipson 2009). 국제 연합 제노사이드 조약(Genocide Convention)에 정의되어 있듯 언어 학살은 어떤 사회가 지배 문화와 언어로부터 강력하게 공격을 받는 것이며, 이는 현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Skutnabb-Kangas 2000). 이러한 정책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Skutnabb-Kangas & Dunbar 2010).

언어제국주의의 확산

영국의 영토를 기반으로 한 영어 확장은 영국 제도(British Isles) 전역에 걸쳐서 시작되었다. 1536년의 웨일스 연합법(The 1536 Act of Union with Wales)은 영국의 권리, 법률, 관습 그리고 언어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었다(Jenkins 2007, 32). 일부 켈트어가 살아남았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게일어가 현재 재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제도 전반에 걸쳐서 단일 언어 사상이 전파되면서 강력한 결과를 초래했다. 단일 언어 사상은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에 있는 식민지 정착민들에게도 파급됐다.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1907년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언어를 위한 자리(room)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영어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캐나다나 남아프리카 같은 정착 식민지와 달리 인도나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같은 개척 식민지에서는 다른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들 지역에는 기후의 문제로 유럽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세력은 지속적인 식민지화의 물결과 유럽의 경쟁국 간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1815년과 1914년 사이에 이천백만 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고, 가장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보다 적은 수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그 다음으로는 남아프리카로 떠났다. 또한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의 인구 이동은 영토를 점령할 권리를 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원주민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가정하는 무주물 신화(terra

nullius)의 목적은 뉴암스테르담(이후의 뉴욕), 뉴잉글랜드, 뉴질랜드, 노바스코샤, 히스패니아(Hispania) 등에 모국과 똑같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는 처음에는 선교 사업과 교육에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영토와 자원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자 정착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교육은 성공의 유일한 가능성이 되었다. 그래서 ‘언어는 영어를, 매너는 세련되게, 종교는 기독교를’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모는 자녀들을 기숙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켰다(Spring 1996, 152). 이런 정책의 직접적 결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본래 존재했던 언어 중 아주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 언어에 대한 언어제국주의를 입증해 준다.

언어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극단적인 사례가 중국의 언어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2010년 교육 계획은 위구르인들이 지배적인 한족 언어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위구르인들의 전통적인 경제와 문화, 종교적 관례를 탄압하는 조치와 딱 들어맞는다. 티베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 스탈린 시절의 소련에서 ‘이중 언어’ 교육이란 러시아어 단일 언어 사용으로의 변화를 의미했다. 한국과 같은 점령지에서 일본의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말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어를 동아시아의 공용어로 만들겠다는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일본어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언어 차별 정책과 이념을 도입하였다(Toshiaki 2005).

미국 식민지에서의 교육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행해졌다. 필리핀에서는 1898년부터 1940년까지 교육에 있어 영어의 배타적인 사용이 강요됐다. 미국 식민지 시절 동안에 공교육, 특히 언어와 문학 교육은 미국 식민주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교육 과정과 교육학의 결합된 힘은 이념적 전략을 구성하고, 식민지적 관계와 현실에 대한 신화를 합리화하여 도입하고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Martin 2002, 210).

정책의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둘 다 토착 언어들에 대해 — 그 언어들이 아예 무시되었거나 초급 교육 단계에서 사용되었거나 간에 — 낮은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공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저학년 이후에는 특히 더했다. 해당 지역의 전통과 교육 관행이 무시되었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토착민 문명화’라는 노골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배 언어에 문명화 속성을 부여하였다(Phillipson 1992, 127-8). 정책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임시로 실행되었더라도 이러한 일반화는 정당하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흑인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는 프랑스 본국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 식민지에서는, 영어가 식민지 엘리트가 되는 공식적 도구이자 비결이었다(Ngugi 1986, 115).

세계은행은 개발 도상국의 교육 기금을 조달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식민지나 식민지에서 이제 막 독립한 국가들에서 언어제국주의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세계은행의 실제 역할은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적 언어의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초등 교육 전반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아프리카화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예를 들어, 대학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보고서에도 아프리카 고등 교육에서의 언어 지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Mazrui 1997, 39).

교육에 대한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은 조직적으로 지역 언어를 무시하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의 영어 사용을 강화하였다. 스리랑카의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방대한 양의 자금은, 다중 언어 국가에서 영어만 교육함으로써 교육을 퇴보시키는 세계은행과 다른 이해 관계자(미국 같은)에 의한 강압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Perera & Canagarajah 2010, 116).

피시먼·콘래드·루벌로페즈(Fishman, Conrad & Rubal-Lopez 1996)의 ‘탈제국주의. 이전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의 지위의 변화, 1940~1990(Post-imperial. Status change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1940-1990)’는 여러 전후 사정 속에서 영어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경험적 서술을 하고 있다. 29명의 기고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담당한 국가 연구에서 언어제국주의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고자들은 모두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 편집자가 개념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어떤 기고자도 영어의 지배를 이론화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피시먼(Fishman)은 영어가 제국주의자의 도구에서 다국적 도구로 재개념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영어는 어찌되었건 자본주의 이후가 아닌 제국주의 이후(영미의 영토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확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관점에서 정확히 다시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같은 책, 8쪽).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 블록은 권력의 소재를 이전의 민족국가 제국주의보다 더 널리 분산시켰다.

언어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a)다른 언어에 비해 영어를 선호하는 언어 차별 정책에 지원을 하는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영어 증진 활동과 (b)영어가 열어 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호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려는 식민지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문제는 마치 (a)는 강요를 포함하고 있지만 (b)는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정리된다(Kirkpatrick 2007, 35-7).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두 요소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권위에 의한 강요나 자유에 의한 선택 모두 맥락상 자유롭지 않다. 추진과 유인의 요인들은 둘 다 언어 패권과 계층화에 기여한다.

또한 커크패트릭(Kirkpatrick)도 이전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영어가 가지는 힘은 식민 지배자들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현대 세계 경제에서 이 국가들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피시먼(Fishman)의 결론(1996, 640)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분석은 이러한 관여가 ‘중대한 이익’이 위협에 처할 때마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의해 제안된 서구 지배적인 의제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2008년의 금융 경제 위기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의 세력 증대를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영어는 세계적, 지역적으로 이익을 강화시키고 다른 언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착취를 위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전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영어의 강력한 지위는 식민지 시대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독립 이후 수년에 걸쳐서 영어가 사회 경제적 이동에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엘리트 집단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영어 교육은 사회 계급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넓히고 있다(Mohanty 2006, 268-9).

영미의 담론에서, 영어는 종종 국제 통상이나 국제 관계의 ‘언어’ 또는 ‘공통어’로 언급되는데 이는 영어가 상업이나 국제 관계의 유일한 언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영어를 특별히 옹호하는 주장의 전형적인 예는 ‘초국가(super-state)’ 유럽 연합(현재 유럽 연합은 27개 회원국이 있다)의 형성을 주장하고, 젊은 사람들의 소비 행태와 국제 교역 통합에 따라 영어를 ‘공통어’로 언급한 한 정치학자의 저술에서 볼 수 있다(Morgan 2005, 57). 모건(Morgan)은 유럽에는 많은 ‘공통어’가 존재한다는 것, ‘국가 간 공통적인 젊은 세대 문화’가 본질적으로 미국적이라는 것, ‘상거래 관행’의 통합은 미국 기업에서 나왔다는 것과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개념적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영어가 중립적이라거나 어느 사회에 살고 있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여하는 단순한 도구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어(lingua franca)’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프랑크족(Franks)의 언어에서 유래하지만 이것은 모국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기능에 대해서는 영어가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사실과 관련 지어 생각해야 한다. 영어는 좀 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 경제 언어(사업과 광고에서 기업의 신자유주의 언어)
- 감정 언어(할리우드, 대중음악, 광고, 소비와 향락주의의 언어)
- 학술 언어(연구서 출판, 국제 회의, 고등 교육에서 학습 내용 전달 수단)
- 문화 언어(이는 여러 국가에서 외국어 학습의 전통적 목표인 영어 사용 국가의 문학 교과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통 교육의 한 요소로 언어 학습과 통합되어 있다.)
- 국가 간 전쟁 언어(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과 그 충성스런 시종들에 의한 공격,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미군 기지의 존재를 기반으로 함)

식민지 시대 이후에, 영어는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강화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들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을 때 권력을 가지게 된 엘리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후에 세계은행의 방대한 원조를 통해서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촉진됐다. ‘미국적 언어’로서 전 세계적인 영어가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영어를 공통어라고 부르는 것이 영어를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매체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Phillipson 2008b, 2009). 논의되고 있는 언어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모국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그 언어가 문화나 그밖의 구체적 목적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추측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교과목으로서의 어떤 언어를 가리키는 말로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이다. 반어적으로, 이 용어는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소아시아에서 이슬람교를 제거하려고 출정한 유럽 십자군의 혼종 언어를 지시하기 위한 명칭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현재 영어는 본질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제시된 세계적인 민영화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은 적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의제로 채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언어 교육학: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국, 일본, 한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영어 원어민을 교사로 채용하면 공교육에서 언어 학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다음과 같은 면의 소양이 부족한 교사들은 매우 위험하다.

- (1) 영어 체계와 음성학, 통사론, 형태론, 화용론, 담화 패턴,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지식
- (2) 교육 이론과 언어 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
- (3) 학습자 국가의 학습 전통에 대한 이해
- (4) 학습자의 모어에 대한 숙달과 지식
- (5)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고급 수준까지 학습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음
- (6)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환경에서 살았던 경험
- (7) 자신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믿는 경우,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식
- (8) 교사로서 제한된 경험
- (9)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가르친 경험의 부족

게다가 사회 언어학의 역동적인 분야나, 이중 언어 사용 연구, 문화 간 의사소통, 언어 권리, 언어 기술과 다중 매체 언어 사용 및 국제적 의사 소통의 변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현재의 세계화 국면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언어 정책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무지의 문제도 있다.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인용한 Loumis(1977)는 일본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한 미국 정치학자인데, 본질적으로 ‘원어민’은 미국적 삶의 방식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아시아와 중동 전역에 걸쳐서, 마치 국적과 생물학적 혈통이 진실로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어민’은 하얀 피부색을 가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질랜드에서 온 누군가로 이해

되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능숙한 언어 교수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인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원어민 채용에 대한 결정은 아마도 선의로 이루어졌겠지만, 언어 학습과 언어 교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계의 무지는 아시아에서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무지한 결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외국어 학습은 이룰수록 더 좋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전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신뢰하였다. 유럽 연합은 초등학교에서, 즉 11살 이전에 두 가지 외국어 학습을 권장한다. 교육적으로 무지한 이러한 결정은 정치인들 자신이 외국어 학습에 성공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발된 것일까?

이렇게 잘못 유도된 정책 뒤에는 중요한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영국과 미국은 1930년대의 제한된 협력 이후에, 1950년대부터 영어를 세계 언어로 키우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앞서 인용한 처칠이 강조한 내용대로, 미국과 영국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서로 가깝다. 1945년 이후 세계적으로 미국화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 지배 이후에도 피지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기를 원했다. 교육은 의존을 영속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과 미국에 의해 전파된 영어 교육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과 이중 언어 교육의 증거를 무시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영어는 단일 언어로(monolingually) 교육되어야 한다.
- 영어는 원어민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 영어는 어릴 때 배울수록 더 좋다.
- 영어는 많이 배울수록 더 좋다.
- 다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영어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다섯 가지 원칙은 사실 오류이다.

- 단일 언어 사용의 오류
- 원어민 오류
- 조기 교육의 오류
- 최대 노출의 오류
- 축소(subtraction)의 오류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신뢰는 유일한, 혹은 지배 도구로서의 영어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Phillipson 1992, 183-218). 이 오류들은 수익이 되는 영어 교육 사업 및 단일 언어 교육과

교과서가 세계적으로 적절하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 다섯 가지 오류들은 유럽 대륙에서의 외국어 교수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영어는 학교에서 외국어로서 성공적으로 교육되었다. 핀란드어는 덴마크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등과 같은 게르만 어족 언어가 아니지만, 핀란드에서도 외국어 학습의 결과는 동일했다. 영어는 (인도와 케냐와 같은 이전의 식민지에서도) 교육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과목으로 교육되었다. 많은 요소들이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영어 학습에 기여했다. 이는 학습 부담량이 아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고 영어에 상당히 익숙하다. 사람들은 학교 밖에서, 매체 속에서, 젊은이 문화 속에서, 여가 활동에서 영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한국에서는 적용될 것 같지 않다. 앞서 인용한 박성열(2012)에서는 “능숙한 영어 실력은 세상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처럼 사회 계층 표지로 작용한다.”라는 결론이 올바른 것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부유층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어 학습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교사와 단일어 학습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신언어제국주의

이 부분에서는 정치 경제학과 언어 정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 영감을 받아 신언어제국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본 제국주의는 “국가와 제국의 정치”(그 권력이 영토에 대한 통제와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독특한 정치 프로젝트인 제국주의)와 “시공 속에서 자본 축적의 분자 과정”(시공간 안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와 이용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널리 퍼진 정치, 경제적 과정으로서의 제국주의)의 모순된 혼합이다(Harvey 2005, 26). 첫 번째는 국가 및 국가 결합, 또는 기업이나 대학 같은 단체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언어 자본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상명하달식 과정이다. 두 번째는 매일의 생산 활동, 무역, 상업, 자본 흐름, 자본 전달, 노동력 이동, 기술 전달, 환 투기, 정보의 흐름, 문화적 충돌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국가 또는 지역적 세력 집단과 같은) 영토적 주체(territorial entities)로 향하거나 멀어지면서 경제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이다(같은 책).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결정적으로 언어에 의존하고 언어로 구성된다.

영어는 기업 세계와 정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주의 신제국주의적 언어로 보일 수 있다(Phillipson 2008a, 2009). 이것은 경제, 정치와 담론의 교차점에서,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언어 자본 축적의 분자 과정을 거쳐 활성화된 언어에 딱 들어맞는다. 신언어제국주의에 관한 정치적 논증 방식은 의사 결정과 언어 정책 및 언어 계획을 나타내는 반면, 경제적 논증 방식은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 결정을 통한 실무, 언어 계획 결정의 실행, 수많은 맥락 속에서 영어의 실제적 사용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자국어를 보존하고 있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영어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 영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언어 자본 축적 현상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부모들이 점차적으로 가정에서 아시아 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는 언어 자본이 축적됨을 의미한다. 독일어나 스웨덴어 사용자가 학문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개인은 이 언어 자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에 가장 잘 기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신제국주의적 언어를 선택한다. 또한 영어를 자신의 언어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기보다, 자신의 언어를 희생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언어가 위축되는 변화를 보일 때,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언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 가정 또는 학문과 같은 영역을 잃는다면 사실상 언어 자본 강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두 구성 요소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언어 정책의 뒤얽힘(interlocking)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 기여하는 공동의 의제 및 일정한 목적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흐름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담론과 기술이 채택되고 창의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는 ‘자유로운’ 세계와 경제 시장으로 불리는 조작된 세계일 뿐이다.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와 스페인어 같은 다른 주요한 국제적 언어의 적극적인 증진은 또한 시장의 힘과 각 언어에 관련된 문화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에 투자된 언어 자본은 현재 영어의 월등한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세계 제국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국제적 언어의 증진 그 자체는 미디어 생산물과 상업적 활동에 적합한 경제 용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테솔(TESOL, 다른 언어 사용자에 대한 영어 교수) — 교수 자료, 시험, 노하우, 원어민 교사 기타 등등 — 은 영국과 미국의 중요한 영리적 사업이고 영어 신제국주의의 핵심적 분야이다. 영어 교수 분야에서 영국은 무형 수출로 직접적으로 13억 파운드를 벌어들이고 다른 교육 관련 수출로 100억 파운드 이상을 벌어들인다(영국의 영어 교수 제공자와 더 넓은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저술인 Graddol(2006) 서문에서, 주한 영국문화원 원장 닐 킨록 경(Lord Neil Kinnock)). 주한 영국문화원은 문화적 외교와 상업적 홍보 활동을 결합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 교수와 영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없지만 2011년 11월에(힐러리 클린턴이 수장인) 국무부와 언어 교수 단체 테솔 인터내셔널(TESOL International)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국 밖에서 영어 교수를 강화하고 영어 교육 효율성과 배양 능력을 향상하며 자신들의 국제적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 미국에 기반을 둔 영어 자원과 전문 지식에 대한 국가적 접근을 확장하기 위함이며, 미국 기업, 대학, 출판업자와 다른 영어 교육 관계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인 영어 홍보는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영어에 대한 공급이 진공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며,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영국과 미국의 정치 세력에 의해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아시아 정부들은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출판사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뻗어 있다. 예를 들어, 피어슨 에듀케이션(Pearson Education)의 국제 사업은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했고,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 진출해 있다 (<http://www.pearson.com/index.cfm?pageid=18>, 2008년 1월 15일 접속). 영어 능력 시험 토플(TOEFL)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s of Princeton, NJ)의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세계적 임무는 시험 이상의 것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서비스는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고, 학습과 실천을 증진하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교육 발전과 직업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피어슨(Pearson)은 최근에 영어 시험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토플(TOEFL)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급 국제 영어 능력 시험(IELTS) 등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시험들과 경쟁하고 있다.”

신언어제국주의가 초국가적, 국가적, 또는 국가 내부적으로 주어진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여부는 실증적 연구와 철저한 기록과 그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부 유럽의 상황 속에서 행해진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언어위원회의 대표와 일부 국수적인 정치인들은 덴마크어가 이미 영역을 상실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고등 교육에서 영어의 사용량이 교육 매체(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과정 혹은 정도)와 과학 서적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 문제는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일부 실증적 연구는 영어가 공제적이라기보다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영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정의가 필요하다. ‘영역’은 넓은 의미(예를 들어 대학 언어)에서 또는 좀 더 좁은 의미(예를 들어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실(loss)’도 언어 사용을 결정하는 배후의 집단과 사람 및 힘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이다. 언어 자본 축적과 강탈이라는 용어는 언어 정책 분석과 형성의 한 관점으로서 언어 관례의 변화와 그 결과의 인과 관계 요소를 확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언어제국주의와 저항 사이의 지속적 갈등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적 활력은 교육과 연구가 각 국가의 자국어로 수행되어 학문 서적으로 출판된다는 데에 기반을 둔다. 방대한 분량의 영어로 된 과학 출판물은 언어 계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세계 출신의 학자들은 점점 더 영어로 책을 출판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Mar-Molinero 2010). 영어로 된 과학 출판물이 극도로 중시되는 반면,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출판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용 색인은 언어 흐름의 자기

보강 고리(self-reinforcing loop of language)를 확립한다. 영어는 널리 유포되고 색인되며, 한층 더 인용된다. 영어는 인용되고 나아가 색인되며 더 나아가 널리 유포된다(Tonkin 2011, 109).

인도에서, 그리고 상당히 팽창하는 다른 경제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영어로 출판된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 언어 계층의 연속성과 지역 언어에 대한 자원 투자의 실패를 반영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대학들은 남아프리카와 중동, 홍콩에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지배적인 역할과 지역적 요구에 봉사할 의무 사이의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학들이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대학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영어만을 사용할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대학들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같은 국가로 대학 캠퍼스를 수출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각각의 경우에 지역 언어 강화 정책이 없거나 무시된다면 영어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 버린다.

유럽 연합은 모든 유럽 연합 언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언어주의와 모든 학생들이 3가지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유럽 연합 기구에서 다언어주의 관리는 무척 복잡하며, 시장의 힘은 유럽 연합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도 영어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다(Phillipson 2011).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추방되거나 자신들의 언어 자본이 강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위에 상술한 개념적 틀은 이 글의 초기에 제기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분석은 언어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경험의 자료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 저시-사회언어학과 언어 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문 성과가 지난 20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정의와 신제국주의적 언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영어 능력을 계발하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이것은 축소적(subtractive)인 학습 결과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영어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과 단일 언어 학사 학위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계적 엘리트 형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세계적으로 영어를 매체로 하는 국제학교가 2001년에 대략 1,700개에서 2009년에 5,270개로 급격히 증가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영역은 세계적으로 현재 180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2020년까지 주로 인도, 중동과 아시아에서 팽창되어 그 가치가 두 배가 될 것이다(Hoare 2009).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은 아마도 영어 사용 국가의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에서 기원하는 언어적 뿌리는 세계 경제와 국제적 이동성과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보다도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북유럽 국가 정부들은 영어 능력의 향상이 모어의 역할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많은 대학들은 졸업생과 직원들이 실제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장할 언어 정책을 만들었다. 대학들은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기관으로서 모국어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국제 사회 관행의 참가자로서 그들은 또한 영어와 다른 국제어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대학들은 언어제국주의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 상호 간의 협동은 북유럽 각료 회의에서 2006년에 승인되고 덴마크어, 페로스어(Faeroese), 그린란드어,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사미어(Saami), 스웨덴어와 영어로 공포된(www.norden.org) ‘북유럽 언어 정책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a Nordic Language Policy)’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문서는 모든 북유럽 국가 주민들의 언어권을 명기하고 있고 언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요한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부 차원의 명시적 언어 정책이기에, 언어 정책이 단순히 시장의 힘에 맡겨지거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정책의 기저에 흐르는 사고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언어를 통합하는 것이다. 초점은 ‘영어를 유일한 대학 교수 언어로 선택함으로써 영어 제국에 대한 집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특별히 고등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선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회에 필수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언어와 학문 언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 사회에 필수적인 북유럽 국가 언어에 의한 학문적 결과의 발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 과학 기술 언어, 특히 문서 형태의 교수는 사회에 필수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언어와 영어로 행해져야 한다
- 종합 대학, 대학 그리고 다른 학문 기관은 그들 분야 내에서 언어 선택, 언어의 동등한 사용, 언어 교육과 번역 보조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에 있는 대학들은 모국어와 주로 영어를 의미하는 국제어에 의한 학습, 교육과 출판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보장할 것을 권고받았다(Harder(2009)의 ‘코펜하겐 대학에서의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한 유용한 분석’을 참조). 이러한 국가에서 문학 학사와 석사 수준에서 이중 언어 현실로의 이행(미국과 유럽 연합이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은 언어 선택의 문제, 양질의 언어 구사, 언어 능력 개발 등이 언어 전문가들의 해결 과제가 아니라 모든 고등 교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는 내용과 매체가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성취하기란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몇몇 대학은 상당히 자세한 언어 정책을 대학의 웹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핀란드어, 스웨덴어와 영어로 게시된 헬싱키 대학의 언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수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언어는 학문적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자원이다.
- 대학의 이중 언어와 복수 언어 환경 및 국제화는 모두를 위한 풍족함의 원천이고 연구 수행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언어 능력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핀란드 문화를 다른 국가에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대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이 언어 유창성을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복수 언어와 복수 문화 공동체는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한다.

헬싱키 대학 언어 센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공식적인 연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조적으로, 코펜하겐 대학은 덴마크어와 영어 모두를 잘 구사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교수진의 대표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국제화 및 동등한 기능 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isation and Parallel Competence)’를 설립했다(www.cip.ku.dk). 어떤 연구에서는 동일한 강의 내용을 양쪽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강의를 촬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연구는 교육 매체로서 영어의 사용에 대한 대학 교수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웹 사이트에서는 센터가 대학 교수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절차를 개발했다고 알리고 있다. TOEPAS(대학 교수진의 구술 영어 능력 테스트)는 대학 교수들에게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상세한 서면과 구술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특별한 능력 개발 도구이다.

학문과 학문 언어는 시장의 힘으로부터 점점 증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것과 전통적인 학문의 자유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 학술 대회나 응용 프로그램 및 전문적 발전 등에서 상호 작용의 많은 형태는 지배 언어, 특히 영어를 불공평하게 선호한다. 정치인들은 기업 세계 및 유럽 연합과 연합한 자신들만의 의제가 있다. 우리 학자들은 우리의 실천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는 대학들이 언어 정책을 확립하고 실행하며 언어적 다양성을 강조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학자들은 최선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수용적이며 생산적으로 말하고 저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국어의 독창성을 희생하거나, 일반 대중이 잘 아는 자국어의 훼손하면서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어날 필요도 없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단순히 이 제한적인 계획에 순응하지 않고 영어 지배 제국의 세력 속에서 적극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은 다양한 언어 속에서 부가적인 복수언어주의를 보장하는 조치에 전념해야 한다.

부록에서는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분류 체계를 상술하였다(Phillipson 집필 중). 이것은 언어 지위 계획, 언어 자료 계획, 언어 습득 계획, 말뭉치와 어법 계획, 언어 기술 계획과 같이 주요한 언어 정책과 언어 계획에 따라서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 분류 체계는 능동적인 기관의 언어 정책이 구체화되면 조정되어야 하고,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잠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영어 사용의 점진적인 증가는 시장의 힘에 따르는 교수와 학생 모두의 양질의 외국어 기술 문제와 함께 대체로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실행될 때가 되었다.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보전과 진흥’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학술 대회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방법이다.

부 록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분류 체계

- 지위 차원(언어 지위 계획)

○ 거시적 수준(Macro level)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기관의 복수 언어 사정과 제한
세계적, 지역적 언어 생태계의 계층과 그에 대한 인식
언어 자본 축적 또는 강탈의 경제적 요소와 과정
중심적 학문 영역에서의 언어 유지와 혁신의 정도
언어 인권 존중의 정도

○ 미시적 수준(Micro level):

핵심적 대학 활동 속에서의 구술과 저술 그리고 웹 사이트 상의 언어 사용
언어권, 언어 의무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인식

- 다음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언어 자료 계획)

○ 다음의 언어 선택을 위한 명시적, 함축적 언어 정책

내부적, 외부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기관
부서와 문학사, 문학석사 그리고 박사 수준의 모든 학위

○ 언어 정책 결정의 실행과 검토를 위한 책임

○ 특정한 학습과 연구 사정 속에서 교육 매체/매체들

○ 기관과 개인의 복수 언어 사용 정체성과 복수언어주의에 대한 인식

○ 교원 및 학생의 언어 숙달에 대한 증명

○ 교습과 연구의 질 평가와 증진을 위한 기준

○ 출판물의 언어와 출판물의 통계적 분석의 양을 정하는 언어 정책

- 실행 공동체의 창설과 유지를 위한 과정(언어 습득 계획)

○ 학문적 언어 숙달 개발을 위한 기능적 목표와 교수와 학생

○ 분화된 활동을 위한 유창성 개발에 대한 학습 과정

습득(듣기, 읽기)과 생산(말하기, 쓰기)

○ 번역과 대조적 연구에 의지할 수 있는 누적적인 초언어적, 상위 의사소통적, 이질 문화적 인식의 개발

- 언어 학습 센터에서의 자기 교육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교습과 학습 활동에 있어서 정보 통신 기술의 통합
-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과 창조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
- 기관 내부와 다음의 외부적 지식 공유
 - 국제적인 학술 논문과 저서
 - 지역 대중 매체
 - 교과서와 참고서
 - 인터넷
- 다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 수준1(L1)/수준2/수준3/에서의 형식(말뭉치와 어법 계획)
 - 권위 있는 참고서와 자료 속에서 언어의 체계화
 - 학문적 목적을 위한 장르와 담론에 있어서 언어 형태의 관습
 - 필요한 경우에 전문 용어와 어법의 창조
- 기술(언어 기술 계획)
 - 인터넷에 기반한 교수와 학습 지원
 - 온라인 자료의 상술
 - 언어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참고 문헌

- Calvet, L-J. (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 Fishman, J. A., A. W. Conrad and A. Rubal-Lopez, (eds.) (1996). *Post-imperial English. Status change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1940-1990*. Berlin: Mouton de Gruyter.
- Gandhi, M. K. (2010). *M. K. Gandhi's Hind Swaraj. A critical edition*. Annotated and edited by S. Sharma and T. Suhrud. New Delhi: Orient Blackswan. First published in Gujarati in 1909.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 Harder, P. (ed.) (2009). *English in Denmark: Language policy, internationalization and university teaching*.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for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 Harvey, D. (2005)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are, S. (2009). *The Guardian Weekly*, 4 December 2009.
- Howe, S. (2002). *Empir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llich, I. (1981). *Shadow work*. Boston: Marion Boyars.
- Jenkins, G. H. (2007). *A concise history of Wa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A. (2007). *World Englishe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nis, Douglas (1977). English conversation as ideology. In *Essays on Language*, ed. Y. Kurokawa. Tokyo: Kiriara Shoten, 1-26.
- Mar-Molinero, C. (2010). The spread of global Spanish: From Cervantes to *reggaetón*. In Coupland, N. (ed.),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lobaliza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162-181.
- Martin, I. P. (2002). Canon and pedagogy: the role of American colonial education in defining standards for Philippine literature. In A. Kirkpatrick (ed.), *Englishes in Asia: communication, identity, power and education*. Melbourne: Language Australia, 201-211.
- Mohanty, A. (2006). Multilingualism and predicaments of education in India. In O. García, T. Skutnabb-Kangas and M. E. Torres-Guzmán, eds. *Imagining multilingual schools. Languages in education and glocaliz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62-83.
- Morgan, G. (2005). *The idea of a European super-state. Public justifi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rton, H.V. (1943). *Atlantic meeting*. London: Methuen.
- Ngũgĩ wa Thiong'o (1986)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ames Currey.
- Park, Joseph Sung-Yul (2012). English language as border-crossing: Longing and belonging in the South Korean experience. In Rapatahana and Bunce (eds.), 208-220.

- Perera, K. and S. Canagarajah (2010). Globalization and English teaching in Sri Lanka: Foreign resources and local responses. In Vaish, V. (ed.), *Globaliz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Asia. The impact of globalization processes on language*. London: Continuum, 106–119.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on, R. (2008a). The linguistic imperialism of neoliberal empire. *Critical Inquiry in Language Studies*, 5/1, 2008, 1–43.
- Phillipson, R. (2008b). Lingua franca or lingua frankensteinia? English in European integration and globalisation. *World Englishes*, 27/2, 250–284, a ‘Forum’ consisting of the article, responses by seven scholars and a closing word by Robert Phillipson.
- Phillipson, R. (2009). *Linguistic imperialism continued*.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also published by Orient Blackswan for seven South Asian countries).
- Phillipson, R. (2011) The EU and languages: diversity in what unity? in A. L. Kjær & S. Adamo (Eds.), *Linguistic diversity and European democracy*, pp. 57–74 (Farnham: Ashgate).
- Pieterse, J. N. (2004). *Globalization or empire*. New York: Routledge.
- Phillipson, R. (in press). Additive university multilingualism in English-dominant empire: the language policy challenges. In *Professionalising multilingualism in higher education*, ed. G. Ziegler, Bern/Frankfurt: Peter Lang.
- Rannut, M. (1994). Beyond linguistic policy: the Soviet Union versus Estonia. In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179–208.
- Roosevelt, T. (1919). Letter to R.K. Hurd, January 3.
http://urbanlegends.about.com/library/bl_roosevelt_on_immigrants.htm.
- Skutnabb-Kangas, T. (2000).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kutnabb-Kangas, T. and R. Dunbar (2010). *Indigenous children’s education as linguistic genocide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A global view*. Guovdageaidnu/ autokeino: Galdu, Resource Centre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www.galdu.org>).
- Spring, J. (1996).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a Native American family and its tribe 1763–199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Tacitus on Britain and Germany* (1948). A new translation of the ‘Agricola’ and the ‘Germania’ by H. Mattingly. West Drayton: Penguin.
- Tonkin, H. (2011). Language and the ingenuity gap in science. *Critical Inquiry in Language Studies*, 8/1, 105–116.
- Toshiaki, Y. (2005). L’aménagement linguistique du Japon imperial – la Corée pendant la période de colonization (1910–45), le “Mandchoukuo” 1931–1945) et “La sphere de co-prospérité de la grande Asie orientale” (1941–1945). Dans Calvet, Louis-Jean et Pascal Griolet (dir.) 2005. *Impérialismes linguistiques hier et aujourd’hui. Actes du colloque franco-japonais de Tôkyô*(21, 22, 23 novembre 1999). Aix-en-Provence : INALCO/ÉDUSUD, 97–118.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전략의 방향

– 전략 방식의 원리와 구조 –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Glenis Philip-Barbara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위원회)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전략의 방향

– 전략 방식의 원리와 구조 –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마오리 언어위원회)

‘언어 재생’에 대한 논의의 도입

Stewart(1968)에 의하면, 언어의 생명력이란 고립되지 않은 공동체의 원어민이 사용함으로써 살아있는 언어로 유지되는 언어의 지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언어의 재생 (language revitalisation)’이란 이러한 공동체의 화자, 혹은 공동체 언어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재생’(Spolsky 1991, Spolsky 1996a)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언어의 생명력을 회복하거나 혹은 모국어를 세대 간에 전달하는 중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Spolsky & Shohamy 2001, 350–351).

Richard Benton(1979)에서 1970년대에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마타와이아(Matawaia), 루아토키(Ruatoki), 루아토레아(Ruatorea) 등 비교적 고립되어 있는 마오리 공동체만이 마오리어를 모어로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당시 모든 다른 지역, 대체로 기존의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공동체에서는 노인들만이 마오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단계에서 제2 언어로 마오리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마오리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교실이나 학교를 위해 조성된 언어 맥락이다.

언어를 안정화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으며 완벽하게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따라서 완벽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마오리 사람이든 브르타뉴 사람이든 누구든 언어 보존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Fishman 2007, 80).

언어 구사자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언어 특성의 보존을 향상시키며, 현대 사회에 사용하기 적합한 언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언어가 유창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기대—이것은 마오리어 구사 인력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와 언어에 숙달될수록 더 고급한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로 인해 동기가 부여되어 왔다. 어떤 학생들은 직업을 구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오리어를 배운다. 또 다른 학생들은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마오리어를 배운다. 앞에서 언급한 조슈아 피시맨(Joshua Fishman)에 따르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책무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는 언어 공동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그들 언어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촉진되어야 한다.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재생 전략

본 공동체 중심 전략은 언어를 구사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매일 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호 작용 상황에서 세대 간, 그리고 어린 아이들 상호 간에 존재하는, 만성적인 언어 사용의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언어 재생에 대한 노력은 마오리어를 유산으로 인정하며, 마오리어 법(1987)에 따른 마오리어의 공식적 상태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청이나 그 밖의 정부 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 중심의 개입이 공동체 중심의 언어 재생을 이룰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을 중시하여도, 과거에 고립된 마오리 공동체에서 사용되던 마오리어를 현실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

현재 마오리어 사용과 관련하여, 마오리어의 재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5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몰입 - 이 전략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둔다. 특히, 최소 하루 이상 지속되는 몰입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언어 몰입 시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맥락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실제 용법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2. 세대 간 의사소통 - 세대 간 의사소통은 미래에 스스로 존재 가능한 언어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방법은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노인 세대가 후세대와 아이들과 함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오리어를 배우며 어른이 되게끔 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힘만으로 어른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세대원들은 다른 세대와 함께 마오리어 몰입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언어에 대한 유창성과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아이들이 배운 마오리어는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정상적인’ 형태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3. 지속적인 말하기 능력 개발 - 언어 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3세대 기성인은 제2외국어로 마오리어를 배웠을 확률이 높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원어민으로서의 능력을 복구하기 위해

서는 말하기 능력을 배우기 위한 교육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언어의 ‘질’이란 매우 주관적이지만, 지역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된 원어민의 언어 형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장르의 언어(격식체, 문학체, 구어체)를 구사하는 능력을 쌓는 것은 언어 공동체가 보다 온전한 상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4. 지속적인 비판 의식 및 언어 계획 촉진 - 비판 의식이란 어떤 것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는 언어 재생에 집중된 리더십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공동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을 통한 학습은 다른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여 제한된 자료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논쟁하며, 통찰력과 실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된 정부 기관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수도 있다.
5. 마오리 공동체 발전 - 마오리 공동체 발전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에는 발전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문화적 통합, 권한 부여 및 자기 결정이 그것이다. 이 발전 전략의 가장 큰 목적은 언어 공동체를 개발하고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로도 전달하는 언어 재생을 위한 것이다.

1. 지속적인 몰입

세 가지 몰입 활동이 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언어 사용 환경의 세 가지 종류에 관한 것이다.

- 1.a. 접근 강화 몰입(Proximity-Determined Immersion, Takiwā Rumaki, ‘Ahakoa ko wai’) - 공동체 몰입 센터는 공동체 인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공동 상호 작용과 더 넓은 공동체의 마오리어 사용을 장려한다. 잘 관리된 지역의 공동체의 집중 활동은 참여자 수를 늘릴 것이다. 각 공동체는 각자의 필요에 적합한 환경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부족 전통 회의장(marae) 기반, 도시 공동체 시설, 초등학교(kura)와 연계).
- 1.b. 단체 강화 몰입(Group-Determined Immersion, Whānau Rumaki, ‘Ahakoa ki whea’) - 가정과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이나 참여 단체를 지원하여 언어 사용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인정한다. 이 단체들은 지속적인 훈련 활동을 체계화하고 유지하여 (특정 훈련 기간 또는 활동 환경에서) 언어를 보존하고 세대 간의 사용을 확산시킨다.
- 1.c. 생활 기반 몰입(Lived Immersion, Papakāinga Rumaki, ‘Ahakoa he aha’) - 세 번째 전략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언어 활용을 중요시한다(공동 가구 및 사회적 연결). 기존의 이러한 공동 생활 장소는 파파카잉가(papakāinga)였는데, 이는 파카파파(whakapapa) 또는 신앙 체계를 통해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다른 공동 생활체와 기존의 파파카잉가(papakāinga)의 확대의 필요성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매일 규칙적으로 교류하는 가까이 사는 지역 공동체
- 특정 기간 동안 공동 생활 (2~25주)
- 유지되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시간 공유 순환
- 언어가 활발히 사용되는 부족 전통 회의장(Marae)/파파카잉가(papakāinga) 주거지

이 네 가지 선택을 통해 우리는 파카파파(whakapapa) 또는 공동의 책무를 통해 언어의 완전성을 높이고, 장기간 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 세대 간 의사소통

세대 간의 언어와 문화 전승은 언어 재생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원리이다.

- 2.a. 지역 공동체를 기본으로 한 원리 - 이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마오리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다세대가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마오리어 사용을 일반화함으로써 문화적 및 언어적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2.b. 출생부터 시작되는 몰입 - 아이를 가질 예정인 부모나, 아기들이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의 출생부터 마오리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언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비 부모들은 자신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아이의 언어 사용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언어 계획, 말하기 능력 개발 및 아이의 언어 발달 관찰을 필요로 한다.
- 2.c. 아동의 마오리어 능력 개발 -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할 자원을 조달하고 언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오리어 능력 개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장의 종류 및 언어의 맥락을 이해하여야 한다.
- 2.d. 지역 미타(mita)의 관련성 - 지역 언어 사용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언어 전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양, 숙어 및 문체는 격식 있는 언어 교육으로는 배우기 힘들고 주로 구두로 전달된다. 아이들은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모어로 배워 보존할 수 있다.

3. 공동체의 말하기 능력 개발

이 전략의 중심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과 예비 구성원들을 위해 접근하기 쉬운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몰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어 공동체의 능력은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언어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3.a. 언어 능력 개발 - 지역 공동체가 언어 습득에 필요한 주도권을 갖고 있도록 한다. 이는 특히 언어 능력이 낮거나, 새로 소개된 공동체 구성원이 있을 경우 중요하다.

3.b. 몰입 훈련 실행 - 모든 일상적인 몰입 활동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지역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접근함으로써 언어 습득의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매일 다세대 간에 사용되는 언어 사용의 본보기가 되고
- 각 지역 공동체가 관심 있어 하는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를 선택하고
- 기존에 사용되는 언어 패턴에 새로운 언어 자료를 소개하며
- 비슷하게 동기 부여가 된 언어 공동체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4. 공동체의 높은 의식 및 훈련 관리

지역 공동체는 언어 재생 전략을 공유하는 다른 지역 공동체에게 활발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면이 우선시된다.

4.a. 공동 활동 - 통합된 지역 공동체 지원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훈련 중인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며 가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언어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4.b. 교육 관리 및 멘토링 - 이 전략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이고 자체 유지가 되는 언어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언어 재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언어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외부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은 공동체 사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5. 마오리 공동체 발전

언어 재생의 핵심 과제는 자체적으로 유지 가능한 언어 공동체를 개발하여 이 공동체가 그들의 언어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내적인 냉소나 무관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언어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헌신과 동기를 유지해야 영어 지배와 외부의 반대 세력으로 인한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 5.a. 문화적 완전성 - 언어 재생에서 정체성의 중요함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중요한 요소는 미타(mita)의 유지, 문화적 표현과 긍지이다.
- 5.b. 권한 - 언어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재설립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 5.c. 자기 결정 - 이것은 마오리인에게 프로젝트의 공동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어 공동체는 그들의 맥락에 맞게 자신을 개발할 능력과 기회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 정책의 목적 혹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는 독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enton, R. A. (1979). *Sociolinguistic survey of language use in Maori communities and households*. Wellington: Maori Unit,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Fishman, J. A. (2007). What Do You Lose When You Lose Your Language? *Stabilizing Indigenous Languages*, 71.
- Spolsky, B., & Shohamy, E. (2001). Hebrew after a century of RLS efforts. *MULTILINGUAL MATTERS*, 350-363.
- Stewart, W. A. (1968). A Sociolinguistic Typology for Describing National Multilingualism. In J. A. Fishman (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pp. 531-545). The Hague: Moulton.



세계화 시대의 헝가리어

터마시 바리디 Tamás Váradi

(헝가리,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세계화 시대의 헝가리어¹⁾

터마시 바러디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서론

본고는 세계화 시대에 헝가리어의 위치는 어떠한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화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정 언어의 지속 가능성은 해당 언어가 최근에 생겨난 디지털 문화의 일부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지원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헝가리어의 주된 사용 영역을 비롯하여 제도, 정책, 법적 지원의 측면에서 헝가리어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헝가리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언어학적 개요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있으며, 인구는 약 천만 명이다. 헝가리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라 말하는 헝가리어 또는 마자르어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헝가리어는 우랄 어족(또는 피노우그리아 어족)의 한 줄기인 우그리아어파에 속한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는 일종의 ‘언어학적 섬’에 해당한다. 언어학적으로 헝가리어와 가장 근접한 핀란드어와 에스토니아어는 중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발트 해 지역에서 사용된다.

유형론적으로 헝가리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헝가리어는 합성과 파생이 매우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풍부한 교착적인 형태론적 특성을 지닌다. 헝가리어 문장 성분의 어순은 (문장 성분 내의

1) 본고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 가브리엘라 코바치(Gabriella Kovács)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단어 순서는 정교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더 자세한 사항은 Abondolo(1992)와 Kiss(1987)를 참고하라.

역사적 개관

헝가리어의 역사는 헝가리인의 조상이 본래 살았던 곳으로 여겨지는 우랄 산맥에서 유럽으로 이주를 시작한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5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고대 튀르크 유목민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튀르크 어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896년경 마자르 부족은 카르파티아 분지(Carpathian Basin)에 정착한 뒤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슈트반 1세는 1000년에 헝가리 왕국을 세웠으며, 헝가리는 그 이후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헝가리어로 된 가장 초기의 기록 유물은 19세기 중반까지 공식적인 언어 사용을 지배한 언어인 라틴어 문서에 적힌 토착어 기록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예배 언어로 헝가리어가 쓰였고, 성경 전문을 헝가리어로 번역한 책이 1590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투로 인해 16세기 초 헝가리는 황폐해졌고, 세 지역으로 갈라졌다. 이 중 동-프로테스탄트 트란실바니아는 독립을 간신히 유지하였지만, 중부 지역은 150년 이상 동안 터키에 점령되었고 서부 지역은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았다. 17세기 말 터키 전투 이후 헝가리는 통합되었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제가 붕괴된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의 지배 하에 있게 되었다.

18세기 말부터 힘을 모으기 시작한 합스부르크에 대한 저항은 소위 개혁 시대(1825~1848)에 강력한 힘을 펼치게 되면서 1848~1849년의 혁명과 독립 전쟁에서 절정에 달했다. 공개적인 정치적 투쟁은 억압을 받았으므로, 합스부르크 통치에 대한 반대는 언어적 저항의 형태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계몽주의 작가 집단은 최초의, 그리고 가장 저명한 헝가리어 연구자인 페렌츠 키진치(Ferenc Kazinczy)의 주도하에 헝가리어를 개혁하고 강화하는 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헝가리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조어 및 새로운 문구들이 생겨났고, 구문은 다듬어졌으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지위와 신용을 얻게 됐다. 헝가리어는 1792년에 중고등 교육 과정의 교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라틴어와 독일어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1844년에 와서야 헝가리 의회는 헝가리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 헝가리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쟁에 패한 헝가리 왕국이 1920년 체결된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영토의 3분의 2를 빼앗긴 것이다. 이는 약 3백만 명의 헝가리어 원주민들이 갑자기 새로이 편입된 국가의 이류 시민이자 소수 언어 사용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이후, 헝가리인은 세계를 영토 내, 국경 너머, 외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헝가리인들은 19세기의 위대한 개혁가인 이슈트반 세체니(István Széchenyi)의 ‘민족은 그 자신의 언어 속에서 살아있다’(Nyelvében él a nemzet)라는 훌륭한 격언을 고수하며,

정치적·행정적 경계들로 갈라져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단일체인 헝가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헝가리어를 꼽는다.

언어 법안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언어와 관련해 유효한 법안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헝가리에는 온전히 언어 문제만을 다룬 단일 법안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공식적 기본법인 헌법에 높은 수준의 선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름과 지명 및 외래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존재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어의 지위에 대한 최근의 의회 제정 법령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프레임볼룸(preambulum), 소위 국가적 공언으로 불리는 헝가리 헌법(공식적 기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모든 카르파티아 분지의 인공적, 자연적 자산과 더불어 헝가리 속에 살아 있는 우리의 유산, 독특한 언어 및 헝가리 문화를 안전하게 지키고 증진하는 책무를 진다.

H조는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1) 헝가리의 공용어는 헝가리어이다.
- (2) 헝가리는 헝가리어를 보호한다.
- (3) 헝가리는 헝가리 문화의 일부로서 헝가리 수화를 보호한다.

이름 표기

2004년 1월 1일에 제정된 법령 2002의 XLV¹⁾는 헝가리 시민의 이름에 대해 규정한다. 가장 중요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헝가리인들의 이름은 헝가리어 철자법을 준수해야 하며, 남성형 또는 여성형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헝가리인의 이름은 헝가리 과학원의 언어학 연구소에서 편찬하고 출간한 공인된 명부에서 선택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려는 이름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언어 전문가들은 제출한 이름이 법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만약 그것이 외국 이름인 경우, 그들은 그 이름이 남성형인지

1) <http://www.1000ev.hu/index.php?a=3¶m=10107>

여성형인지의 여부와 승인된 이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이름이 유래된 언어와 문화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하는 등의 힘겨운 책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소의 권한은 연구소에 제출한 헝가리 이름에 국한된다. 즉, 헝가리에 거주하는 소수 언어 사용자 부모들은 이러한 과정이 면제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이름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정부의 등록 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거기에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헝가리 내 소수 언어 사용자를 위해 승인된 별도의 이름 목록이 있다.

지명

정부령 303/2007(XI. 14.)²⁾은 지명에 대해 규정한다. 지명의 제정, 유지 및 수정에 대한 문제는 지역 개발부에서 담당한다. 실제로 그 임무는 사법 행정부, 내무부, 국방부, 외무부, 국가 자원부 뿐만 아니라 헝가리 과학원, 에외트비시 로런드(Eötvös Lorand)대학과 같은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위원을 임명하는 지명 위원회에 위임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새로운 지명 선정을 비롯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지명의 개명도 관할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언어학적, 역사적, 문화적 및 정치적인 고려 사항들이 개입되는 섬세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의 정부령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활동하는 독립된 전문 기구이다.

외래어

공공장소에서 외래어 표지판이 널리 퍼지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의 압력에 따라 정부는 법령 XCVI(2001)³⁾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광고 게시물, 상점 간판 및 기타 공적인 발표문은 헝가리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상점의 간판에 쓰인 상점 이름(회사명 또는 상품명은 제외), 고객용 문서 정보는 헝가리어로 작성되어야 한다(§2 (1)). 만약 외래어와 함께 같은 크기의 헝가리어가 인식 가능하게 표시된다면, 외래어 표기가 허용될 수 있다(§2 (2)).
-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대중이 접근 가능한 개인적 장소 및 민간 시설, 시민을 위한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는 헝가리어로 작성되어야 한다(§3 (1)). 만약 외래어와 함께 같은 크기의 헝가리어가 인식 가능하게 표시된다면, 외래어 표기가 허용될 수 있다(§2 (2)).

2)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0700303.KOR

3) http://www.complex.hu/jr/gen/hjegy_doc.cgi?docid=A0100096.TV

- 이 법령에 따라, 헝가리어 사용에 정착된 표현은 외래어 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정착된 표현이나, 그것의 헝가리어 번역에 대한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소비자 보호 당국은 언어학 자문 위원회와 접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당국은 협의에 근거하여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5 (1)).
- 소수 민족의 권리에 대한 법령 No. 77(1993)의 §42에 따라 소수 민족 언어로 된 문구는, 해당 지방 정부에 그 민족이 거주한다면 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 (4)).

모든 외국어 명칭(로고 및 상표 등록된 슬로건은 제외)은 해당 외국어 명칭과 동등하게 표시된 헝가리어 번역과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 외래어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언제 헝가리어 어휘 목록에 통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당연히 대규모 말뭉치를 참고하지 않고는 매우 해결하기 어렵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헝가리 과학원 내에 새로이 임명된 언어학 자문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다.(E. Kiss 2004) 법령의 도입은 공공의 이익을 따른 것이며, 한동안 이 법령의 시행 여부는 주요한 논쟁거리였다. 오늘날 자문 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나, 부다페스트 시내를 거닐다 보면 이 법령이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원회는 외래어의 지위나 특정 표현에 대해 논쟁이 제기된 사례들을 조사한다. 만약 그 사례들이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그에 대해 어떠한 자체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벌금조차 부과할 수 없다.

철자법

철자법이 엄격한 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헝가리 문화에서 이는 법령과 동등한 시행력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비교했을 때, 헝가리어 철자법은 상대적으로 알기 쉽다.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어휘 항목 내의 문자 소와 음소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철자법에서 규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은 발음에 맞춰 철자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하게 대응시키는 것은 간단하고 자동적이라 간주되는 동화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모국어 사용자를 위한 것이지만, 정서 체계의 당위적 명료성으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헝가리어 철자법에 대한 책임은 헝가리 언어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시행하는 헝가리 과학원에 있다. 위원회는 도서관, 2차 중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헝가리 학계의 모든 분야를 대표한다. 첫 공식 철자법은 1832년 발표되었으며(Fábián 2007), 현 철자법은 1984년 발표된 11차 수정안이다. 12차 수정안은 2004년부터 준비 중에 있다.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를 과학, 문화, 언어학 단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장기간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Keszler 2010). 이는 위원회가 변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저항과 상업적 이익이 개입된 기득권층의 반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언어 함양

모국어의 지위에 대한 우려는 헝가리 문화의 내부적 과제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어는 19세기 전반기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한 독립 전쟁에서 주요 전투의 배경이었다. 실제로 헝가리 과학원(또는 학회)은 헝가리어를 보호하고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830년에 설립되었다. 상당히 최근까지 언어 함양은 헝가리 언어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 분야였다. 헝가리어 쇠퇴에 대한 우려는 헝가리 지식인들의 마음속에도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 지속적인 퇴보의 운명을 지닌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언어에 대한 낭만적 개념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누구라도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독립 국가의 개념에 있어서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언어의 기능에 의해 강화된다. “*Nyelvében él a nemzet*”(민족은 그 자신의 언어 속에 살아 있다.) (István Széchenyi).

이러한 관점이 지배적인 것이 반드시 언어 함양자(언어 순화주의자) 자신들의 활동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 언어학의 완고한 반대자이자 선구적 이론 언어학자인 István Kenesei는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적 의미에 주목한다.

“언어가 동시대 헝가리 사회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헝가리어 교사들은 그들이 우연히 마주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언어학자들이 조언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언어학자들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이 옳든 그르든.”(Kenesei 2002)

일반 대중의 이와 같은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언어학 연구소는 일반 대중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중한 우리말’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상위 10위권 내에 들며 수십 년간 방송되고 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인기와 미디어 및 학교에서 받고 있는 높은 명망에도 불구하고, 언어 함양자들은 몇 가지 근거에서 여러 언어학자들에게 심각한 비판을 받는다(Kontra 2010, Nádasy 2003, Kálmán & Nádasy 1999, Sándor 2002). 그들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견해는 실질적 언어 사용면에서 견고한 실증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비표준적인 형태의 언어 사용자에 대한 모욕 또는 차별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그 결과로 그들의 교수법이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모국어 내 언어 차별이라는 용어(Kontra 2010, Skutnabb-Kangas 1988)로 불리는 것인데, 이는 많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인권의 총체적 침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행은 모든 단위의 교육 기관들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

Pléh(1995)는 헝가리인들이 상당히 규범 지향적인 언어 공동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언어 사용자들이 잘못됐다고 낙인 찍힌 발음을 할까 두려워 과도한 발음 수정을 하는 현상이 만연한 사실로부터 입증된다.

언어 정책

고귀한 선언과 헝가리 문화와 대중적 사고 속에서 언어 함양이 누리는 존중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설립된 언어 정책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Kontra(2010, 190)는 엄중히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헝가리 정부나 인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헝가리어 기구들은 체계적, 이성적, 이론적으로 건 강한 사회적 노력을 근간으로 하여 기능하는 어떠한 언어 정책 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집시에 대한 언어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헝가리어의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계획도, 헝가리 소수 언어가 언어학적으로 처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실행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방임주의 언어 정책이 위협에 처한 언어의 악화를 지속시켜, 소멸 및 언어학적 집단 학살을 초래하는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기에 특히 우려되는 바이다. 자유방임주의 언어 정책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해당 언어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 왔으며(Phillipson 2003, 1-23), 따라서 의도적인 (국가) 언어 정책의 부재는 모든 헝가리 시민들 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2010년은 심각한 철자법 오류에 노출된 헝가리 모국어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펼쳤던 팔 슈미트 (Pál Schmitt)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였으나, 이러한 거친 여론이 형성됐던 2010년 이래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신임을 잃은 대통령(표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이 남긴 하나의 족적은 만장 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헝가리어의 날에 대한 의회 결의안(66/2011 [IX.29])이었다. 결의안의 핵심은 단지 헝가리어의 날을 11월 13일로 제정하는 기념적인 과업뿐만이 아니라 학계, 교회 및 민간단체 대표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자문을 받아 헝가리어 지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보고서에 기초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주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모국어 학문 및 교육
- (2) 헝가리어와 인접국의 헝가리어
- (3) 헝가리어와 3차 교육 기관
- (4) 헝가리어와 공교육
- (5) 헝가리어와 대중 매체
- (6) 헝가리어와 종교 언어의 사용
- (7) 헝가리어와 언어 기술
- (8) 헝가리어와 국가
- (9) 헝가리어와 언어 함양

(10) 헝가리어와 사회적 약자 집단

(11) 헝가리어와 예술

이 보고서는 출판되어 웹사이트 ‘<http://www.magyamylvert.hu>’에 공개된 뒤 대중에게 정밀 검토를 받았다. 작성 시기에 그 보고서나 실행 계획에 대한 공개적 자문의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 분야의 범위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는, 종합적인 국가 언어 정책이란 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EU 내에서의 헝가리어

헝가리는 연합 확대에 있어 단일 움직임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다른 9개국과 함께 유럽 연합(EU)에 2004년 가입했다. 이로써 헝가리어를 포함해 공용어의 수는 현재 23개로 증가했다. 유럽 연합 가입에 앞서 헝가리 법률은 유럽 입법과 조화를 이뤄야만 했으며, 이는 소위 공동체 연합으로 불리는 가장 중요한 유럽 법률과 규제 및 결정 등의 총체가 헝가리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엄청난 작업의 분량은 85,000~100,000쪽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헝가리의 유럽 연합 가입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은 반면, 주요 사회 언어학자인 예뇌 키시(Jenő Kiss)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로 언어 정책의 관점에서 헝가리의 지위를 논하였다(Kiss J. 2004).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 연합 가입은 법률에 근거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당연히 이는 사실상의 지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공용어의 동등성에 대해 명확히 기록된 유럽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 설립에 대한 조약의 2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모든 시민들은 유럽 연합 조약의 13조 또는 본 조항에 언급된 기관, 기구, 사무소 또는 단체들에 55(1)조에 언급된 언어 중 하나로 문서를 써 보낼 수 있고 같은 언어로 답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문서는 모두 공용어로 번역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가 최초로 작성된 언어의 표시는 전혀 없다. 유럽 연합의 DG 번역(역주: 유럽 위원회 조직 내 번역 서비스)은 이러한 모든 언어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번역하는 영웅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간과 예산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럽 연합은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다단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럽 연합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들은 하나(프랑스와 유럽의 법정)에서 셋(유럽 특허 사무소)내지는 다섯(유럽 품종 사무소) 개의 범위에 걸쳐 선별된 소수의 실무 언어를 채택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모든 기관의 누리집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헝가리어가 현존하는 약 6,000종의 언어 중 모국어 이용자 관점 수로는 50~60위에 위치하므로 소수 언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에도, 유럽 연합 내에서 실무 언어로서의 역할을 헝가리어에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헝가리 시민들이 실제로 헝가리어로 제안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헝가리어 지침이나 양식을 기대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f. Kiss 2004).

사실 헝가리어의 새로운 역할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유럽 연합 내 3대 주요 언어가 지배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는 사회 언어학자들이 있다(Szépe 2001).

헝가리어는 과연 위협에 처해 있는가?

Kiss(2004, 15)가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인들은 헝가리어와 실제 헝가리 국가의 생존에 대한 우려를 곱씹는 경향이 있다. 그는 200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은퇴 세대 응답자의 45%, 중등학생의 48%, 초등학생의 45%가 a)방지에 의해서, 또는 b)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헝가리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비관적 견해는 확실히 언어학적 이유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Kiss는 이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강화되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의 위협이 언어의 운명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헝가리 국경 내의 헝가리어와 관련하여, 헝가리어가 멸종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모든 문맥과 상황에서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9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확고한 성문 표준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국가 배경이 존재하므로 헝가리어의 장기적 미래에 대해 의심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 Kiss가 헝가리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고등 교육과 일부 기술 등록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일부 언어 영역이 토대를 상실하고 권위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헝가리어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 아이들을 영어 학교로 보내도록 부모들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거리에서 헝가리어를 접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습득하는 것에 최상의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수십 년 내에 특정 분야에서 헝가리어가 불편해져 대신 영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어 지배적인 다중 언어 사용자의 수가 젊은이들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Kiss 2004, 168)

소수 언어로서 헝가리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이웃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일이다.

소수 언어로서의 헝가리어

위에서 언급하였듯 트리아농 조약의 결과로 수백만 명의 헝가리어 사용자들이 본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은 공용어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소수 언어로 규정된 헝가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멀리 받는 이류 시민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소비에트 시대 동안 국수주의는 억압 받았으며, 언어 박탈을 포함하여 인접국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헝가리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됐다. 즉, 이념의 지배하에서 사회주의 캠프 내의 모든 사람들은 형제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었다.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대중적 논의의 전면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형제 같은 공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한층 더 복잡한 상황으로 대체되면서 헝가리어 지위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왔다. 소수 언어 사용의 지위에 대한 글이나 책의 출판 또는 연구가 금지된 초기와 달리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주에서의 헝가리어 지위에 대한 슈산 갈(Susan Gal)의 고전적 연구가 1979년에 뉴욕에서 출판되었다), 일련의 새로운 연구와 종전에는 유용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등장했다(Lanstyák & Szabolcs 1998, Csernyicsk & Váradi 1996, Kontra & Hattýár, Magyarok és nyelvtörvények (Hungarians and Language Legislation) 2002, Kontra & Saly, Nyelvmentés or nyelvárulás?(Saving or Betraying the Language?) 1998 참조).

공간 제약상 이러한 문헌에 대해 자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요약 부분에서 헝가리어 사용이 인접국 내에서 점차 위협에 처해지고 있다는 지배적인 견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다수 언어 사용 집단 속에 산재하여 살고 있는 헝가리어 사용자들이다. 이 모든 지역, 학교 단위에 헝가리어 학교가 없기 때문에, 헝가리어는 고군분투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강화된 다수 언어 학교 교육은 소수 언어 사용을 억압하는 전통적인 수단이었다. Göncz(1999)는 다음을 인용한다.

“아이들에게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잘못 선택된 주요 언어를 타하기 보다 그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간신히 극복한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학교의 통제 속에서 사회적 엘리트의 가치와 규범 체제를 채택하게 된다.”(Kiss 2004, 133)

이러한 전형적인 상황에서 사회-심리학적 동기는 상당히 분명하며 이에 저항하기 어렵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이중 언어 상황에서 교육 체계는 동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이게 된다 (Kontra 2010, 19). 이러한 문제는 개입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 본질적인 대상이 되지만, 이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반드시 나아진 것은 아니다.

요 약

현 상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지으며, 구문론적 구조와 어휘 자원 등 헝가리어의 언어 내적인 윤곽은 영어를 포함한 그 어떤 언어로부터도 구조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는 않다는 É. Kiss의 견해에 동의한다. 언어 운동가들의 목소리로 증폭된 현대의 언어 변화는, 헝가리어가 수세기에 걸쳐 보여 준 언어 접촉 현상과 그 범위와 종류에서 차이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명확하지 못하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헝가리 내에서 사용되는 헝가리어와 인접 국가에서 사용되는 헝가리어의 지위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즉각 알아챌 수 있다. 헝가리 내에서의 헝가리어 지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며, 압도적인 인구가 사용하는 모국어이다.⁴⁾ 헝가리어는 국가 언어이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이 헌법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헝가리를 통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결속 수단 중 하나이다. 그 권위는 단지 고등 교육 같은 시장성 있는 분야와 학문적 출판물 및 논문과 같은 주변적인 분야에서만 도전받고 있을 뿐이다.

이 상황은 헝가리어 사용이 헝가리 국외, 특히 인접국에서 고려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는 언어 변화를 통한 언어 상실의 점차적이면서 회복 불가능한 과정이 상당히 눈에 띈다. 헝가리 본토에서 헝가리어를 사용하며 사는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인구가 인접국에서 소수 언어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⁵⁾ 이들 지역에서 헝가리어가 직면한 주된 위협은 세계화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헝가리어 중심의 이중 언어 사용의 언어학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화에 대한 끈질긴 압력이다. 헝가리어 중심의 이중 언어 사용은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헝가리어

세계화는 모든 언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는 헝가리어에도 중대한 도전이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이 제안은 헝가리어의 권위를 강화하는 모든 단위 교육 기관 내의 헝가리어 교육 증진, 학문 영역에서 헝가리어의 사용 진작, 외래어의 제한된 사용을 위한 법적 조치에서부터 소수자 상황에서 헝가리어인의 언어 권리 강화 등을 망라한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실은 헝가리어가 단지 세계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로서, 세계화의 기술적 기반은 디지털 통신(이동 통신과 인터넷)에 의해 주로 확보되고 있다. 디지털 문화로

4) 20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4%가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헝가리어를 구사하는 집시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중은 8~10%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총 인구 수는 9,986,000명인 반면 헝가리 국외의 카르파티아 분지에 살고 있는 헝가리인은 총 2,377,000명으로 집계됐다.

진행 중인 흐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계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목적을 둔 전략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의사 소통의 수단이자 문화적 유산 및 지식의 전승자로서(이는 언어의 다양한 기능 중 단지 두 가지 예일 뿐이다), 언어는 디지털 문화에 복잡하게 속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Prensky 2005/2006).

어떠한 언어가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기반을 갖춘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주로 인간 언어 기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언어학자들의 책임이지만, 쌍방향 웹 2.0의 시대에는 클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의 형태로서 자발적인 공동 노력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후자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의 경이로운 성공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언어의 소멸’이라는 적절한 제목이 붙은 신랄한 글에서, Kornai는 언어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모국어로 된 위키피디아의 존재를 가정한다. “위키피디아가 없다면 생존도 없다”(Kornai).

언어 기술 및 언어 자원

우리 시대에 의사소통은 전자 매체의 형태로 대량의 텍스트(연설이든 문서든)를 생산하는 전자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언어의 과거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는 어느 한 언어의 모든 언어학적, 문화적 유산이 디지털 형태로 포착되면, 단지 시간상의 문제가 되어 증가하는 속도가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다음 세대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며 소통하는 데 주로 디지털 장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매체나 경로는 언어 기술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 자원의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언어의 일반적 참조 말뭉치이다. 이러한 자원 중 가장 훌륭한 표본 하나는 영국 국가 말뭉치(British National Corpus: <http://www.natcorp.ox.ac.uk/>)이다. 이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었고, 오늘날 규모 면에서 10배에 달하는 다른 말뭉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방법론적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나의 말뭉치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실질적인 언어 사용의 분석을 위한 굳건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어 운동가가 방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책임은, 편견은 없을지라도 언어 사용의 실질적인 사실 대신에 자신들의 선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을 공포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언어학(Kennedy 1998)은 ‘말하는 대로’ 언어를 분석하는 것에 관한 한 그 자체로 필수불가결함을 입증하는 활발한 지식 분야가 되었다.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안정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참조 말뭉치 묶음이 일반적인 표준의 문서화, 감독 및 유지의 수단이 된다.

사실 막스 바인라이히(Max Weinreich)의 의역에 의한 유명한 재담⁶⁾을 마르코 타디츠(Marko Tadic)가 기발하게 의역에 사용⁷⁾한 것처럼, 한 언어는 그 배경에 수백만 단어 규모의

말뭉치를 가진 방언이 있을 수 있다. 언어의 실질적인 사용과 관련된 언어학자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진정한 언어의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언어 기술은 단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필요를 위한 역할을 하며, 폭넓게 인식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를 차지한다. 철자 및 문법 검사기와 같은 일상의 소소한 장치에서부터 음성 인식 및 번역 장비에 이르는 언어 기술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장치들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가장 광범위하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용 영역은 텍스트의 홍수를 순환시키는 월드 와이드 웹(WWW)이다. 이를테면, 언어 자원은 언어 기술을 주도하는 연료이며, 때때로 통계적 장치 번역으로서의 언어 기술은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위한 끝없는 욕구를 보여 준다.

유럽 언어 공공 기반 계획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 연합은 언어 자원이 언어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왔다. 최근 유럽 단일 연구 지역(ERA·European Research Area)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연구 기반의 발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 주요 인프라 시책은 유럽 연구 인프라 전략 포럼(ESFRI,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첫 번째 로드맵⁸⁾은 범유럽적으로 관심이 높은 35개 연구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26개국의 제후를 포함하는 진정한 범유럽적 프로젝트인 CLARIN 프로젝트(<http://clarin.eu>)가 있다. CLARIN 시책의 임무는 언어 기술의 혜택을 e-과학, 특히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실상 네트워크화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장기 프로젝트는 최근 2개년의 초기 단계를 완료하였고, 5년간의 구축 단계를 시작하였으며, 그 뒤에는 운영 단계가 이어지게 된다.⁹⁾ 또 다른 관련 프로젝트로는 FLARENET(언어 자원 네트워크 조성)이 있는데, 이는 모든 부분의 이해 관계자를 모아서 해당 부문의 통합을 위한 유럽식 전략과 상식적 관점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유럽적 규모에 기초하여 언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야심 찬 시책은 탁월한 네트워크인 META-NET(다중 언어 기술 동맹)¹⁰⁾이며, 이것의 임무에는 META-SHARE(<http://www.meta-share.eu/>)로 불리는 언어 자원 및 기술 저장고의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언어 자원은 분명한 자격(CCL(Creative Commons licences)을 기초로 하는 META-SHARE 자격 범위 중 하나)과 적절한 메타 데이터 및 문서를 갖추고 동시에 오픈 소스와 다운로드 가능한 것을 선호한다.

6) “Language is a dialect with an army and a navy.”

7) 개인적인 대화

8) http://ec.europa.eu/research/infrastructures/index_en.cfm?pg=esfri-roadmap

9) <http://flarenet.eu/>

10) <http://www.meta-net.eu/>

또한 META-NET은 언어 기술 지원의 관점에서 무려 31개 언어에 대한 백서¹¹⁾를 일련의 이중 언어 형태로 하여 유럽 언어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풍부한 정보를 비롯해 각 언어에 유용한 언어 기술 지원 상태에 대해 대등한 평가에 기반한 비교 평가를 제공한다.

EFNILEX

EFNILEX은 유럽 국립 언어 연구소 연맹(EFNIL)의 프로젝트이다.¹²⁾ EFNILEX은 주요 출판사에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언어들의 이중 언어 사전 개발을 지원하는, 언어 기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FNILEX의 임무는 이러한 언어들의 언어학적 고립을 경감함으로써 덜 자원화된 언어를 지원하고, 유사한 규모의 다양한 언어 사용자 간의 의사 소통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의도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 것은 병렬 말뭉치(번역된 텍스트)의 부족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일반 대중이 아닌, 병렬 말뭉치에서 비롯된 문맥상 적절한 번역어에서 특히 혜택을 보는 사전 편찬자를 위한 도구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도구의 흥미로운 특징은 사용자의 필요와 능숙도에 따라 사전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범위(표제어의 수)와 정확성 간의 적합한 균형을 창출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http://efnilex.efnil.org>를 참조하라.

헝가리어 언어 기술 지원

헝가리어는 상대적으로 언어 기술의 관점에서 양호한 지원을 받고 있다. 헝가리어 국가 말뭉치(Váradi 2002)¹³⁾는 인접국에서 살고 있는 헝가리어 소수자와 헝가리 국내의 총 5개의 언어 분야(언론, 순수 문학, 과학, 공공 및 민간)에서 수집된 1억 8,500만 어절을 포함한다. 이는 현재 기가(십억 어절) 규모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 말뭉치는 형태론적으로 분석한 주석이 포함되며, 97.5%의 정확도로 각 어절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이것은 120만 어절¹⁴⁾로 된 구문 분석 말뭉치(문법적으로 분석된 문장으로 구성된 말뭉치)를 포함하며, 영어-헝가리어와 헝가리어-영어를 포괄하는 산업 강도 장비 번역 시스템인 중간 규모의 WordNet(Kuti et al. 2007)¹⁵⁾과 이 두 언어¹⁶⁾간에 사용되는 수십 종의 언어 쌍을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17위를 차지한(2009년 12월 기준)¹⁷⁾ 강력한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1) <http://www.meta-net.eu/whitepapers>

12) <http://efnil.org/projects/efnilex>

13) http://mnsz.nytud.hu/index_eng.html

14) http://www.inf.u-szeged.hu/rgai/nlp?lang=en&page=nlpproj_syntax

15) http://www.inf.u-szeged.hu/rgai/nlp?lang=en&page=nlpproj_hunont

16) www.webforditas.hu, www.itranslate4.eu

언어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절한 제목의 논문 ‘디지털 시대에서의 언어의 소멸’에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모국어 위키피디아의 존재를 가정한 **Kornai**에 따르면, 위키피디아의 규모 및 수준은 위기에 처한 언어들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라는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위키피디아가 없다면, 생존도 없다”(Kornai). 이는 흥미로운 기저 현상을 드러내는 위키피디아의 특정 언어 편집의 규모와 반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생존을 위한 충분 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가 언급한 사례들 중 보크몰(**Bokm(El)**)과 뉘노르스크(**Nynorsk**)가 있다. 이 둘은 노르웨이어의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수년간 위키피디아의 존재와 나란히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뉘노르스크보다 보크몰이 4배가량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출된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둘의 관점 차이이다. 뉘노르스크는 도메인 수의 크롤이 단지 2,600만 단어인데 비해 보크몰은 16억 2천만 단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양측에서 창출된 모든 공식적인 페이지를 고려한 것이다. Kornai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뉘노르스크를 지원하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식적 언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인들은 블로그와 트위터에서의 사용으로 이미 이들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에 오직 그들과 함께 할 언어로 보크몰어를 택하였다(Kornai, 2).

결론

헝가리어는 전 세계의 헝가리인, 특히 인접국에서 살고 있는 토착 헝가리 인구를 통합하는 강력한 결속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헝가리의 현 행정 경계 내에서 헝가리어의 지위와 장기적인 생존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언어 그 자체에 반하는 무분별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또는 어휘적 약화 면에서의 위협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헝가리어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 미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용상 제한이 없이 일상 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국어인 헝가리어만을 사용하는 집단이 아주 드물고(만약 어쨌든 존재한다면) 언어 변환 과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인접국과는 철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언어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우려는 디지털 문화 출현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완전히 성장한 언어 사용의 장기적 지속을 위해서는, 언어의 디지털 기반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미래 디지털 네이티브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필요성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7)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Multilingual_ranking_December_2009#100_000.2B_articles

참고 문헌

- Lanstyák, I., & Szabolcs, S. (Eds.). (1998). *Tanulmányok a szlovák – magyar kétnyelvűségről (Studies on Slovak – Hungarian bilingualism)*. Pozsony: Kalligram Kiadó.
- Gal, S. (1979). *Language Shift. Social Determinants of Linguistic Change in Bilingual Austria*. New York: Academic Press.
- Csemyicskó, I., & Váradi, T. (Eds.). (1996). *Kisebbségi iskolai nyelvhasználat (Minority language use at school)*. Budapest: Tinta Kiadó.
- Skutnabb-Kangas, T. (1988). Multilingualism and the education of minority children. In T. Skutnabb-Kangas, & J. Cummins (Eds.), *Minority Education: From Shame to Struggle* (pp. 9–44). Philadelphia: Clevedon.
- Sándor, K. (2002). Nyelvművelés nálunk és más nemzeteknél (Language Cultivation in Hungary and in other nations). *Társadalomkutatás (Social Sciences)*, 20, 12 1–149.
- Nádasdy, Ç. (2003). *Ézlések és szabályok — érások nyelvről, nyelvészetről 1990–2002*. Budapest: Magvető Kiadó.
- Szépe, G. (2001). *Nyelvpolitika: Múlt és jövő (Language Policy: Past and Present)*. Pécs: Iskolakultúra.
- f. Kiss, K. (2004). *Anyanyelvünk állapotáról (On the State of our Mother Tongue)*. Budapest: Osiris Publishing House.
- Abondolo, D. (1992). Hungarian. In W. Brigh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ume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ábián, P. (2007). A magyar helyesírás sorsfordulói (The vicissitudes of Hungarian Orthography). In G. Bozsik, V. Eöry, & R. V. Raisz (Eds.), *Hagyomány és újítás a helyesírásban* (pp. 11–23). Eger: EKF L'ceum Publishing House.
- Keszler, B. *Beszámoló az MTA Magyar Nyelvi Bizottságának 2010. évi munkájáról (Annu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Hungarian Language for 2010)*.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ttp://mta.hu/data/cikk/11/74/71/cikk_117471/MagyarNyelviBiz2010.pdf.
- Kenesei, I. (2002). Hányféle igazság van? (How Many Truths Exist?). *Magyar Nyelv (The Hungarian Language)*, 39–49.
- Kiss, f. K. (1987). *Configurationality in Hungarian*. Akadémiai Kiadó.
- Kiss, J. (2004). A magyar nyelv és az Európai Unió (The Hungarian Language and the European Union). In Z. Kulcsár (Ed.), *25 év anyanyelvünk szolgálatában (25 years in the service of our mother tongue)* (pp. 26–40). Budapest: Akadémiai Kiadó.
- Kontra, M. (2010). *Hasznos nyelvészet (Useful Linguistics)*. Somorja: Fórum Kisebbségkutató Intézet.
- Kontra, M., & Saly, N. (Eds.). (1998). *Nyelvmentés or nyelvárulás? (Saving or Betraying the Language?)*. Budapest: Osiris.

- Kontra, M., & Hattyár, H. (Eds.). (2002). *Magyarok és nyelvészvények (Hungarians and Language Legislation)*. Budapest: Teleki László Alapítvány.
- Kálmán, L., & Nádasy, ç. (1999). *Hárompercesek a magyar nyelvről (Three minute writings on the Hungarian Language)*. Budapest: Osiris.
- Pléh, C. (1995). On the dynamics of stigmatization and hypercorrection in a normatively oriented language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11, 3 1-45.
- Phillipson, R. (2003). *English-Only Europe? Challenging Language Policy*. New York/London: Routledge.



위협받는 언어들: 아프리카 토착어의 보존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Sihawukele Ngubane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위협받는 언어들: 아프리카 토착어의 보존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서 론

2012년 2월 21일, 국제 연합 산하의 세계 각국은 세계 모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을 기념했다. 세계 전역의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동시에, 이 날은 또한 1952년 2월 21일 방글라데시에서 모국어인 벵골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라는 시위를 벌였던 학생 4명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다. 남아공에서의 기념행사는 언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자유 투쟁과 우리의 토착어가 응당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하려는 갈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투쟁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땅의 고귀한 아들인 치에치 마시니니(Tsietsi Mashinini)는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언어와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다. 그와 코초 세아틀로로(Khotsho Seathlolo) 및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아프리칸스어를 교수 언어로 시행하는 것과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만을 공인하는 정책 전반을 거부하기 위해 저항하였는데, 이 정책들은 토착어 발전에 매우 유해했던 것이다.

그들이 아프리칸스어 언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칸스어를 교수 언어로 시행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해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프리칸스어를 배우고 말하는 것에 저항하는 태도를 길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당연하게도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 수행이 아프리칸스어를 악으로 여기게 했지만, 우리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 대해 징벌을 가하지는 말아야 한다.

1. 남아공의 상황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처럼 남아공도 토착어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토착어는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사하였는데, 식민지 시대에 식민 종주국의 언어가 지배 언어가 되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들을 이용한다.

남아공 헌법에 따르면 남아공의 모든 공식 언어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영어 외의 모든 언어들이 진흥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남아공의 일반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아공 언어위원회(PanSALB)는 종전에 소외되었던 남아공 토착민들의 언어를 발전시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인구의 단 8%만을 차지하는 반면 토착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 국민의 대다수가 토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들어 영어는 아프리카인 및 비아프리카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 영어가 지성과 교양을 상징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망을 부여하는 반면 토착어들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어는 사업, 과학, 학문, 인터넷, 교육, 방송, 대중 매체, 의료 및 제약, 공청회, 광고, 거리 표지판, 제품 등의 매체가 되며,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의 삶 속에 포함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단 하나의 토착어만이 사용되는 시골 지역 사람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이들은 언어 형식으로 인해 낙인찍히며, 원시적인 사람 심지어는 미개한 사람으로 비취진다. 깊은 산촌의 억양으로 말하는 농고마(Nongoma) 출신의 사람이 요하네스버그로 오면, 그는 줄루어(IsiZulu)로 ‘바리(bhari, 바보)’ 또는 ‘임파타(impatha)’ 등으로 불리게 된다.

남아공에서 모든 아프리카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토착어를 찾는 데에 해결책은 여전히 없다. 일부 사람들은 남아공에 국가를 통합시킬 하나의 국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어느 언어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토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줄루어와 코사어(IsiXhosa)가 이 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따라서 응구니(Ngumi) 어족의 언어가 국어로 선택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토어(Sesotho)를 사용하고 있다. 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한다는 것은 특정 언어들의 더 심한 소외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통받게 될 다른 소수 토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권리 장전에 반한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250~500가지이다. 하우사어(Hausa)는 나이지리아와 서 아프리카 국경 지역 국가들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동아프리카에서는 스와힐리어(KiSwahili)가 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약 남아공에서 하나의 지배적 토착어를 공용어로 선택한다면, 소수 언어 공동체들에게 이 언어 사용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 언어가 지배적이게 되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큰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며, 교육상 성취에서의 이점으로 인해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 집단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남아공에서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을 부여받는 것이다. 줄루어 사용자로서 필자는 벤다어(Tshivenda)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모어 외에 추가적으로 벤다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소외되었던 9개 언어 모두를 진흥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테지만, 한 언어만을 진흥시킨다면 원치 않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공용어만이 널리 쓰이고 나머지 언어들은 공용어라기보다는 국어로서만 간주되는 아프리카 내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남아공에서는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훌륭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나 이상의 국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가 바로 그 예들이다. 이 길은 따를 만한 것인가? 우리는 남아공의 국어로 두 주요 언어군들 각각에서 한 언어씩 고르고, 여기에 벤다어와 쉐나어(Xitsonga)를 추가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각 언어가 헌법에 의해 공인된 공식적 지위를 보유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정부 문서들에 네 가지 언어가 사용될 것임을 암시한다. 현재 영어는 공통어이다. 그러나 영어가 영어를 제2 언어로 하는 화자들을 통합하는 힘을 갖고 있는가? 공통어로서의 토착어가 없는 상황에서 남아공은 의사소통 목적으로 영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영어가 어떠한 토착 부족의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며, 따라서 다양한 인구 집단에 있어 공통의 언어로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어의 사용은 문맹이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종전의 식민 지배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일부 남아공 사람들은 이에 개의치 않으며, 세계 공통어라는 이유로 영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남아공에는 언어 문제의 진전을 위해 인식해야 할 두 가지 대조적 측면이 있다. 첫째는 서류상으로는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는 헌법과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에서 예상하는 각 언어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총체적으로 그다지 많이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서류상으로 남아공 헌법은 민주주의, 11개의 공용어, 남아공 언어위원회에 기반한 언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학술 기관들은 아프리카 언어들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남아공의 언어 다양성은 틀림없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가장 진보적인 헌법상의 언어 규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헌법은 여러 언어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모어로 말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 장전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1961년 남아프리카가 공화국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언어와 영어만이 공용어였다. 오늘날 남아공에는 11가지 공용어가 있다(수화는 표준화되지도 않았고, 남아공의 열두 번째 공용어로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도전 과제이다). 11가지 공용어 외에 로베두어(Khilobedu), 북 은데벨레어(Northern isiNdebele), 소토어(Sesotho)의 영향을 받은 푸티어(Phuthi)와 같은 방언이 있으며, 응구니

어족의 언어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발달한 언어로는 인식되지 못하는 주요 방언들이 있다. 이민자 집단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자라트어, 힌디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남아공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언어들은 남아공에서 비 공용어로 분류될 수 있다.

남아공 통계청의 2001년 11개 공용어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줄루어가 약 23%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코사어가 16%, 아프리카칸어가 13.3%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8.2%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1.6%의 은데벨레어였다. 통계에 따르면, 영어는 사용자 수로 겨우 6위를 기록했으며, 남아공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 토착민의 대다수는 9개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착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다름으로써 토착어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남아공 통계청은 2003년 4,480만 명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25가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영어로만 수행되는가? 또한 어떻게 영어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남아공 의회의 언어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의회에는 통번역자들로 구성된 언어 부서가 있지만, 지도자들이 토착어의 공적 인지도나 신뢰도를 끌어올리지 않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남아공의 민주주의 체제는 토착어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동시에 토착어의 최악의 적이기도 했다. 토착어를 진흥하기 위한 기관들이 설치됐지만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금 없는 권한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2. 남아공의 언어 계획 정책과 수행 분석

한 국가의 언어가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민감한 문제가 된다. 남아공 헌법에서 제공된 권리 장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권리 장전의 규정과 불일치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문화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상기한 권리를 부정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든 언어가 생활 문제에서 중요하며 사회의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도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앞서 토착어를 습득하고 대중들이 자신의 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 차별 정책을 만든 국민당(Nationalist party)이 ‘흑인 자치 구역’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토착민들을 더 작은 규모의 민족들로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트란스케이(Transkei)와 시스케이(Ciskei)에서 진흥된 언어는 코사어였다. 보푸타츠와나(Bophuthatswana)에서는 츠와나어(Setswana), 카웅과네(KaNgwane)에서는 스와티어(Siswati), 콰데벨레(KwaNdebele)에서는 은데벨레어가, 가장쿨루(Gazankulu) 지역에서는 총가어가 진흥됐다. 흑인 자치 구역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했다. 이는 토착민 간의 구분을 영구화하였는데, 토착민들은 서로서로를 다르다고 간주하였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들에서는 영어와 아프리칸스어가 지배적이었다. 토착어들은 흑인 자치 구역에서만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주로 토착어로 교육받았고, 영어는 상위 단계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수 수단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1995년 당시 예술문화과학기술부는 언어계획사업단(LANTAG, Language Plan Task Group)을 설립하였는데, 그 임무는 남아공의 국가적 언어 계획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의 권한은 언어 정책에 착수하는 것이었고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았다. 언어계획사업단 설립의 목적은 언어 다양성에 대한 편협한 태도와 그 결과로 생긴 토착어들에 대한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협들은 무엇인가?

- 아프리카에서의 영어 헤게모니
- 교육에서의 언어
- 부족 제도
- 도시화와 이민
- 사업 및 정부 공식 문서에서의 언어 사용
- 기술
- 현대화
- 세계화
- 국경 간 이동
- 국제화
- 관광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이들 중 일부를 아래에서 간략히 논의한다.

1) 국경 간 이동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화자들도 남아공에 살고 있다. 곧, 각 부족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프랑스어(중앙 및 서아프리카)나 포르투갈어(모잠비크, 앙골라) 등 식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남아공에 사는 것이다. 이들이 남아공으로 왔을 때 그들은 영어를 배워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이 영어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 남아공의 토착어에 위협을 가한다. 남아공 주민들은 다른 언어에 대한 학습이 권장되지 않은 채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토착어만을 말하고 진흥시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벤다어(Tshivenda)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루어를 하는 콰줄루나탈 지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각 지방에서 토착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 다른 언어들을 그 지역 공용어로 추가해야 하며, 이는 지역 간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것이다.

2) 교육에서의 언어

고등 교육 기관들이 언어 정책들에 착수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대개 시행되지 않았다. 언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기관들은 다중 언어 사용보다 이중 언어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콰줄루나탈(KwaZuluNatal)대학은 줄루어와 영어를 진흥시키며, 스텔렌보스(Stellenbosch)대학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진흥시킨다. 포트헤어(Fort Hare)대학은 코사어와 영어를, 프리토리아(Pretoria), 유니사(Unisa) 및 프리스테이트(the Free State)대학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진흥시킨다.

3) 기술

인터넷의 페이스북, 트위터 및 와츠앱과 같은 누리 소통망(SNS) 서비스나 휴대 전화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4) 세계화

국제적 무역이나 소통에 영어가 이용된다. 직업을 구하고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현지인들은 영어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이력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면접도 영어로 행해진다.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공식 문서 서식에도 영어가 사용된다.

5) 현대화

젊은이들은 독서 문화, 특히 토착어 문학을 향유하지 않는다.

6)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남아공 라디오 방송국들은 청취자들이 충분한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아프리카 언어 라디오 방송을 무시하는 이상한 현실을 반영한다. 토착어를 사용하는 라디오 방송들은 대중들이 토착어로 시사 문제, 정치적 화제들을 토론하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할당하지 않는다. 영어를 사용하는 방송들만이 시사 문제를 다룬다. 달리 말하면, 영어 방송들은 ‘담화 라디오’인 반면 토착어 방송들은 ‘음악 라디오’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영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상업 및 사업의 언어로서 영어는 단단히 자리 잡는다. 영어는 지성의 상징이 되었고, 남아공의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언어가 되었다.

언어는 유형, 무형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모어의 보급을 진흥하는 모든 활동들은 언어 다양성 및 다중 언어 교육을 진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 언어적, 문화적 전통을 더 충만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해, 관용 및 대화에 기초한 결속을 고양하는 데 기여한다.

3. 헌법 규정들

남아공 헌법 제1장(수립 규정), 6항(언어)에서는 남아공의 언어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에 대해 밝히고 있다. 남아공의 공용어는 페디어(Sepedi), 소토어, 츠와나어, 스와지어, 벤다어, 쉐나어, 아프리칸스어, 영어, 은데벨레어, 코사어, 줄루어이다. 남아공 헌법 2절은 모든 공용어의 이용을 증진하고 그 지위를 끌어올리는 실질적이면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규정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은 언어 사용 정도, 현실성, 비용, 지역 상황 및 전국 또는 지방과 관련된 인구상의 필요와 선호의 균형을 고려해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두 가지 공용어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한 규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앙 정부가 모든 공용어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2절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공용어의 사용을 규제, 감독해야 한다는 점이다.

5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아공 언어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규정이다.

- 모든 공용어, 코이어족, 나마어족, 산어족, 수화의 사용 및 발달을 위한 상황 조성 및 진흥
- 독일어, 그리스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타밀어, 텔루구어, 우르두어, 아랍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및 남아공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언어들을 포함하여 남아공 내 공동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든 언어에 대한 존중 보장과 각 언어의 진흥

4. 남아공 언어위원회(PanSALB)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1995년 법령 59에 의해 설립된 법정 기관이고, 공명정대하게, 두려움이나 선호, 편견 없이 활동할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181항 2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독립적이고, 헌법과 법률에만 종속되며, 공명정대해야 하고, 두려움, 선호, 편견 없이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이 법률은 어떠한 정부 인사나 기구도 그 기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의회(181항 3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남아공 언어위원회가 직면한 과제는 그 기능이 국가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며, 그 결과 널리 알려진 자금 흐름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181항 4절은 “어떠한 정부 인사나 기구도 이 기관들의 기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 관련 기관에는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재무부,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의 관재 임무를 가지는 예술문화부, 예술문화포트폴리오위원회 등이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권한에 더하여 헌법,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 지방언어위원회(PLC, Provincial Language Committes)뿐만 아니라 국가언어기구(NLB, National Language Bodies)에 대한 규범과 규정들이 2005년 정부 관보에 발표되었다. 국가사전편찬부(NLU, National Lexicography Units)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협회의 비망록과 조항들에 의해 관리된다.

남아공 언어위원회가 언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할한다고 주장하던 정부 인사들에게도 혼란이 만연했다. 언어를 다룬 법안들을 시행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종종 이 법안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언어 발전을 조정하는 일이 정부의 임무로 할당되지,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임무로 편성되지는 않는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감독 기능을 하는데, 단지 감독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다중 언어 사용의 진흥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및 지방 정부들과 상호 협력하도록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지방언어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과 몇 차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부처에는 언어 담당 부서나 예산, 여러 언어 사용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통역 서비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통합 발전 계획(IDP) 전략들을 단지 영어로만 작성하면서, 그들이 전달한 계획을 각 언어 공동체가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연설에 영어만을 사용하며, 그 때문에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전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왜 학교 교육 과정에 남아공 수화를 포함시키는 데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피터마리츠버그(Pietermaritzburg)의 법정 사례를 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오백만 명의 청각 장애인들이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무관심한가? 민주 체제 시행 18년을 맞으며, 언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우리를 압박한 영국 출신의 변호사와 남아공 법정에 다시 한 번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것에 대한 애정에서 스스로 언어 법안을 제정할 수는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비정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제국주의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온 것이 아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들이 외국어보다 못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으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언어적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영어가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굴복시켰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에 전념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다룰 것을 표명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다음과 같은 언어 관련 성과들이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 리펠리페그프와브(Ljpejpegpwab) - 용어 사전 프로젝트 완결
- 벤다어 및 스와지어 사전 출간
- 북서 지방 IKS 엑스포 워크숍
- 츠와나어 국가언어기구(NLB)의 HIV/AIDS 전문 용어의 인증, 총가어 국가언어기구(NLB)의 철자법 규칙 및 은테벨레어 진흥 및 인지 캠페인
-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츠와나어, 줄루어, 코사어, 세페디어, 아프리카스어
- 선진 연구를 위한 아프리카인중양협의회(CASAS)와 제휴하여 세계 모어의 날 기념
- 독립 신문사와 교육 과정 내 언어 향상을 위한 업무 협정 체결

위에 언급한 예들은 위원회가 제한된 기금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핵심 임무를 보여 준다.

5. 남아공 언어 법안에 대한 검토

1995년 벤 응구바네(Ben Ngubane) 박사가 지명한 네빌 알렉산더(Neville Alexander) 박사가 주도한 언어계획사업단과 예술문화과학기술부(DAST)가 국가 언어 계획 보고서를 1996년 내각에서 발표하였다. 언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도움을 주도록 초빙되었는데, 이들은 에이브러햄 찰스 은카빈데(Abraham Charles Nkabinde) 교수, 템바 음시망(Themba Msimang) 교수, 케티웨 마라이스(Khethiwe Marais) 교수, 케두시지 부텔레지(Qedusizi Buthelezi) 교수 등이었다. 이후 교육 정책 내 언어(1996), 학교 내 언어 정책을 규제하는 남아공 학교 법안의 언어 정책에 대한 규범과 표준(1996), 고등 교육을 위한 언어 정책(20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 언어 정책의 틀은 2003년 내각에 의해 승인되었다. 정책에 대한 진술, 시행 계획, 남아공 언어 법안 및 남아공 언어 전문 위원회 법안(DAC 2003a, 5)을 내각에 제출했다. 이 과정은 언어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고등 교육 기관들에 잘 수용되었다.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18년이지만 남아공에서 정부의 언어 정책과 실제 언어 관행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와 대학에서 아프리카 언어들을 학습하는 것, 대학에서 교수 언어로 토착어를 사용하려는 시도, 다중 언어 사용, 정부 부처나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현재 상태의 법안은 다중 언어 사용을 촉진하지도 않고, 남아공 언어위원회에 어떠한 강제력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부처들에 대한 징벌 조항들도 없다. 언어와 모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된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처럼 중요한 측면을 전달할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 양성도 부재하다. 학교들은

모어 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교수 학습 언어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인 학부모들이 토착어를 잘 유지하면서 경제적 계급이 올라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녀들이 토착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흑인 남아공인들에 의해 면접이 영어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채용에서 탈락하는 것을 경험한다. 지성과 영어는 동의어로 취급된다. 사람들은 역할 모델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토착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는 지적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는 계속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왔다. 이들은 국가 발전 계획에 토착어에 대한 내용은 별로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을 경험해 왔다.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수년이 흐른 시점에서, 공공 기관은 언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조성하는 선두에 서야만 한다. 모든 공공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존중과 관용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총체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지키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권리 장전의 규정과 불일치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고수해야 하는 남아공 헌법의 장엄한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2012년 1월 17~18일 예술문화포트폴리오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SA 언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데 동의했다.

2012년 1월 25일 예술문화부는 동일한 위원회에 30차례 이상 해당 법안을 제출하여 대응 내용을 법안에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문화부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감사하지만 변화가 상당히 미미하고, 공청회 동안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우려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 두 가지 공용어

이 법안이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실행할 개연성이 낮다는 사실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정부에는 “토착어의 사용을 증진하고 그 지위를 끌어올리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11개 공용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공평하게 다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헌법 6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 부처, 공공 단체 또는 공공기업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공용어로 적어도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대중에게 최소한 한 가지 토착어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점진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언어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 부처에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2) 언어 정책을 채택할 시기

예술문화부는 모든 국가 부처,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이 18개월 이내에 언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위원회의 잔여 임기가 겨우 24개월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개월은 긴 시간이다.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과정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3) 지방 정부들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남아공의 지방 정부들은 헌법 6항 3절 b에 근거해 언어 정책 채택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헌법상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데 12개월을 보장받아야 한다.
- 어떠한 지방 정부라도 공동체의 20%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언어를 분명히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언어 사용상의 지역적 현실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4) 언어 옴부즈맨, 언어조사위원회 및 개선책을 위한 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언어 권리를 위반한 자를 다루는 필수적인 체계가 부족하며, 이 법안이 언어 권리 위반의 희생자를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견해는 공평한 언어 제도를 가진 다수의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최상의 국제적 표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 언어 법안은 공용어의 이용을 규제하는 핵심적인 법률 체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러한 언어 법안은 종종 공용어의 형평성 형성을 초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탁월한 법률 체계로 이루어진다.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법정을 이용하는 현 체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는 언어 옴부즈맨과 언어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문제를 언어 옴부즈맨에 회부하고, 언어 옴부즈맨에서 언어조사위원회로 그 문제를 회부함으로써 언어 법안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언어 옴부즈맨과 언어조사위원회는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사무소에 마련된다. 고등 법원의 판사 또는 사법서비스위원회에 의해 특별히 임명된 심사 위원들이 제기된 분쟁을 판결하기 위한 언어조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으로 임명된다.

언어조사위원회의 심사는 고등 법원과 동등한 관할권을 가지며, 평등 법원(Equality Court)의 적용 가능한 규칙, 규정들은 필수적인 조정 이후에 언어조사위원회를 규제하는 정부 부처의 규정에 따른 공표가 있을 때까지 언어조사위원회에서 적용될 수 있다.

5) 개선책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사람이든 또는 구성원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언어 집단의 구성원들이나 어떤 정부 기구든 언어조사위원회에 적절한 개선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초래된 언어 권리, 언어 정책, 언어 관행에 대한 위반 혐의 또는 위반 조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언어 법안 또는 국가 언어 정책 틀에 포함된 의무의 불이행
-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권고, 판결 또는 결정의 불이행

언어조사위원회는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 임시 명령
- 확인 명령
- 중간 명령 또는 중단 명령
- 피해 보상 명령
- 문제 제기된 상황을 다루는 특별 조치의 이행 명령
- 언어 정책 및 실행의 감사 시행을 피소자에 요구하는 명령
- 법률의 규정 및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판결, 권고, 또는 결정의 준수 명령
- 소송 절차 당사자에 대한 비용 책정 명령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고소 관련 절차에서 언어조사위원회는 동일한 조직이나 기관에 관해 남아공 언어위원회에 들어온 유사한 고소와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언어조사위원회가 어떠한 신청이 중요한 새로운 원칙을 제기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언어조사위원회는 그 고소가 결과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에게 비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이 우선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중앙 정부의 공용어 사용에 대한 헌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안이 다른 어떤 법률의 상충하는 규정보다 우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언어 권리 위반자를 다루는 더 나은 체계를 설립하는 것에 부응하도록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언어 권리 위반의 희생자들에게 개선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 옴부즈맨과 언어조사위원회의 수립을 통해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공청회 동안 의회에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받았고, 우리는 우려된 사항의 일부가 수정된 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현재 법안은 우리의 견해대로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공용어 사용 법안 2011’로 수정되었다. 2절 9b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할 것이 고려되어 토착어를 위태롭게 한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리 수정 법안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행정 목적으로 적어도 세 가지 공용어를 규정할 것을 허용했다는 점이 또 다른 돌파구이다.

6. 국가, 지방 및 지역 단위의 언어 다양성 및 정책 관리

남아공에서 언어 다양성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는 종전에 소외되었던 언어들이 공식적 지위를 얻을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언어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행사에서 널리 퍼져야 한다. 각 공용어의 위엄은 존중받아야 하며,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언어 정책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힘겨운 현실은 다양한 언어 집단 출신의 사람 두 명 이상이 접촉하며 언어 선택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대상이 되는 청중이나 독자들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정부 관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양측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한다. 일부 경우, 영어가 유일한 선택지인 상황에서 그 공동체들이 영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 없다면 의사소통은 실패한다. 직장에서 인적 자원은 효율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 태도, 종교적, 사회적 요인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작업 환경에서 인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유산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적절한 인적 자원 접근은 다양한 문화와 대조적인 세계관 모두를 받아들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7. 결 론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남아공에서 토착어가 직면한 도전에 유념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토착어 진흥 5개년 전략을 신중하게 숙고하였음을 확신한다. 조직이 처했던 모든 장애물들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아공의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모어를 수용할 것과 다중 언어를 사용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다수의 백인들이 토착어 학습을 거부하는 것과 아프리칸스어 사용을 배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조직들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에 비추어, 일단 의회에서 통과된 언어 법안은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지금부터 또 다른 20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일단 우리가 공동으로 행동한다면 남아공에서 언어 풍경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럽 연합은 세 가지 미만의 공용어를 채택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들이 한 가지 공용어를 선택한 반면 남아공은 11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아우르는 상호 작용의 질적인 향상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토착어를 자랑스러워하고 다양성을 통해 이득을 얻는, 보다 나은 남아공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 보호

수기요노 Sugiyono

(인도네시아, 언어 발전 진흥 기구)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 보호

수기요노

(언어 발전 진흥 기구)

1. 개 요

문화유산으로서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에, 문제는 언어의 소멸을 어떻게 늦출 것인가이다. 약 6,500종의 언어 가운데 해마다 100여 종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언어 100여 종과 호주 토착어 200여 종 이상이 소멸되었다. Nettle and Romaine(2000)은 다음 세기에 세계 언어의 절반 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퍼스트 피플 문화 재단(First People's Cultural Foundation 2005)의 사이먼 로빈슨(Simon Robinson) 대표는 21세기 말까지 대략 세계 언어의 90%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언어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사용자가 감소하거나 사라져 간다면 그 언어는 위협에 처했다고 간주된다. 제1 언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대부분 제2 언어인) 다른 언어가 채택되고 사용되는, 이른바 이중 언어의 사용 때문에 언어가 소멸하게 된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새로 도입된 언어 때문에, 처음에 배우고 사용했던 조상 대대로의 언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언어의 전환이 일어난다. 세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언어 학습이 확산됨에 따라 제1 언어는 점차 소수 언어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Dorian 1994, 135).

언어 소멸에 대한 위협을 언어의 죽음에 비유해 분류해 보면, 언어의 즉각적 소멸은 갑작스런 죽음, 급진적 소멸은 급진적(radical) 죽음, 불안정한 이중 언어 사용 상황에서 소수 언어가 역으로 다수 언어가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멸은 상하반전의(bottom-to-top) 죽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McMahon 1994, 234)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 문헌어까지 포함하여 —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 언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것은 관련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 지원, 국가 교육 체계에서 언어 사용 보호, 언어학적 규제 강화의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어 개발 함양 기구(ALDC: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를 설립해 거의 모든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다. 비록 학습-교육 과정의 초기 단계에 제한되지만, 국가 교육 체계에서 정부는 교실 내 상호 작용의 매개로서 지방어의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규제 강화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법령 24를 발표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언어와 문헌의 다양성을 이용하고 개발하며, 함양 및 보존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2. 언어학적 사실: 숫자와 생명력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3,46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국가인데, 육지 면적은 약 191만 km^2 , 해상 면적은 약 62억 7,900만 km^2 로 최소 10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Ethnologue(201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1,128개 이상의 부족이 거주하고 있고, 약 726종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그 많은 언어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용어)는 만다린어, 영어, 힌디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벵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에 이어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이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어는 프랑스어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ALDC는 인도네시아 전체 영토의 75%가량을 포괄하는 언어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남은 지역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인 말루쿠와 파푸아이다. Wurm(1981)이나 Ethnologue(2000)와 같은 여타의 언어 지도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다른 연구가들의 조사에 근거해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 조사 지역에서 수집하는 자료에는 스와데시(Swadesh) 어휘 목록과 문화 어휘, 수백 개의 구문 및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전 민간 문화 말뭉치뿐만 아니라 질문지의 모든 문항도 음성 형식으로 녹음, 저장되어 있다.

2008년 전체 조사 대상 지역이 확정되고 지도로 만들어진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제외하고 최소 442종에 달했다. 언어 분포 지도는 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표 1. 인도네시아 언어 지도

이 연구를 통해 나머지 지역인 말루쿠와 파푸아에 대해서도 언어 분포 지도가 작성될 것이다. 2011년까지 이미 프로젝트의 85% 정도가 진행되었고, 133종의 또 다른 언어가 확인되면서 현재 총 언어 수는 575종으로 집계되었다. 언어 분포 지도는 이후 2013년에 갱신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언어 지도는 늦어도 2015년에 완료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각 언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조어를 재구하기 위한 역사-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각기 다양하다. 그 중 3종의 언어를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바어는 8,430만 명, 순다어는 3,400만 명, 마두라어는 1,360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놀로그(Ethnologue)의 현재 목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각 언어 사용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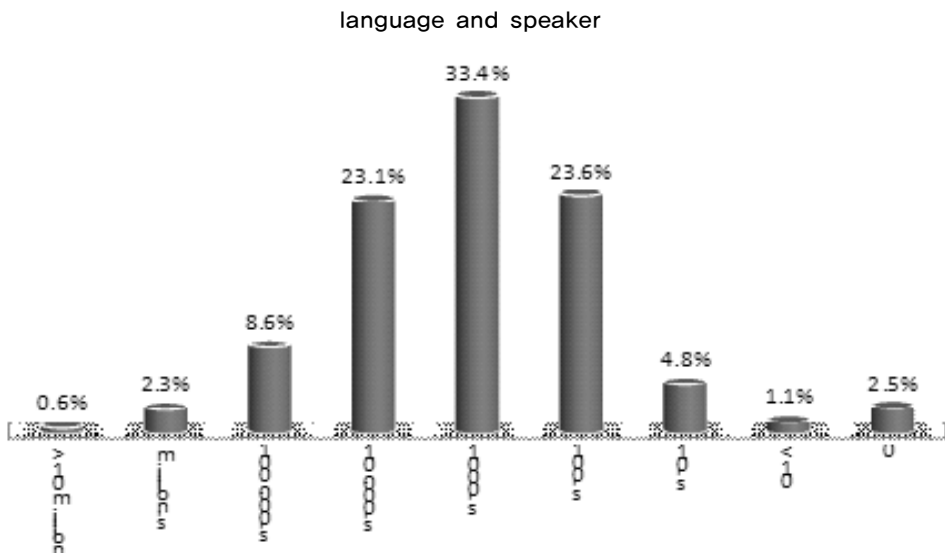


도표 2. 언어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비중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분포 지도’에 따르면, 640종 이상의 인도네시아 토착어(지방 언어) 가운데, 말레이-폴리네시아어가 400종 이상이고, 파푸아어가 240종인 것으로 나타났다(2001, 135). 이 중 약 154종의 언어가 되살아났고, 139종의 언어는 소멸 위기에 처했으며, 15종의 언어는 이미 소멸하였다.

표 1. 소멸 위기에 처했거나 소멸한 언어의 수

Location	Endangered	Extinct
Java	0	0
Borneo	1	0
Moluccas	22	11
Papua and Halmahera Island	67	1
Sulawesi	36	1
Sumatra	2	1
Timor-Flores and Bima, Sumbawa	11	0
Total	139	15

소멸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소멸한 언어의 대부분은 말루쿠, 파푸아, 할마헤라 섬, 술라웨시에서 발견되었다. 지리적 경계가 언어의 생명을 지속시킨다고 한다면, 바다와 숲, 산과 같은 자연적 경계로 인해 고립된 지역의 언어는 다른 언어와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언어 소멸은 상당 부분 자연 재해나 부족 간 전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의 토착어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이민족 간 결혼의 결과이다. 이 두 가지로 인해 토착어 사용자는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도네시아어 사용자 수는 증가하게 되고, 제1 언어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1990년 인도네시아 인구 조사에서, 174,303,277명의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14.8% 이하만이 모어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많은 32,607,330명으로 18.7%를 기록했다. 이는 토착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이들 가운데 거의 6,832,185명이 일상 대화에서 더 이상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소멸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민족 간의 결혼과 도시 공동체 내에서의 이민족 간 접촉으로 인해 토착어 사용자 수의 감소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1 언어 또는 제2 언어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수의 증가는 정치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입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도네시아어는 1928년에 국어(national language)로 지정되었고,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함에 따라 국가 승인 언어(the authorized language of the country)가 되었다. 국어와 국가 승인 언어로서 인도네시아어의 전략적 지위는 완벽한 언어 정책과 언어 계획에 의해 진흥되어 인도네시아 언어의 급성장을 이끌어냈다. 언어 정책에 의해 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어휘들이 개발되고 문법이 표준화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은 문자 체계의 다양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물론 모든 언어가 문자 체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문자 전통은 수 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토착어 문자 체계는 팔라바 왕조와 아랍어의 문자 체계에서 유래하였다. 400년대 이래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팔라바 왕조에서 문자 체계가 기원했으며,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아랍어 문자 체계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는 설이 있다. 19세기까지 최소 11개의 토착어 문자 체계가 사용되고 발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바어, 순다어, 발리어, 부기어, 카로니즈어, 만다일링어, 람퐁어, 레장어, 토바어, 크린치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자바어와 발리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달한 문자 체계는 브라흐미 문자에서 기원하였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최소 200종의 문자 체계가 브라흐미 문자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오늘날 인도에서 발달한 거의 모든 문자 체계는 브라흐미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힌두교-불교를 통해 인도의 영향을 받으며, 인도의 문자 체계인 산스크리트어를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 산스크리트 문자 체계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팔리 문자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말레이제도에서 카비 문자로 변형되었다. 카비 문자는 주로 고대 자바 문학에서 쓰였는데, 태국 리곤의 비문을 보면 자바섬 외부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쿠타이 카르타네가라 이스트 보르네오, 케다, 미얀마, 태국, 웨스트 자바에 일부 남아있는 4~7세기경의 비문을 보면, 남인도의 그란타 문자가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비문은 팔라바 왕조 시기인 5~6세기경에 구리 도자기판에 쓰여졌다.

그란타 문자는 남인도에서 브라만 드라비다 계층이 산스크리트어로 성스러운 경전을 쓰기 위해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4세기 팔라바 왕조 시기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동남아시아에 들어온 그란타 문자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팔라바 문자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토착어 문자 체계에서 발달해 간 문자 체계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600~800년경 누산타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랍 문자가 그 지역의 문자 체계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말레이 언어에 맞게 수정되어 29개의 아랍 문자에 말레이 음운 체계 내의 6개 문자가 추가된 자바 문자가 형성되었다. 이 자바 문자는 당시 팔라바와 브라흐미에서 파생된 문자 체계가 이미 사용되고 있던 지역에서도 무난히 발달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카비에서 파생된 자바 문자를 가지고 있던 자바에서도 페곤(pegon)으로 알려진 아랍식 말레이 문자가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달한 11개의 문자 체계는 인도네시아의 문해(literacy) 전통이 이미 수 세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팔라바, 카비, 아랍어 문자로부터 채택, 수정된 새로운 문자 체계의 생성은 문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그 당시의 문명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

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11개 지역 문자 체계는 높은 문화적 가치와 상당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다.

보다 보편적인 라틴 문자가 들어오면서 토착어 문자 체계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착어 문자 체계의 사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소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원주민이 사용하는 토착어 문자 체계가 사라져감에 따라, 인도네시아인이 이룩해 온 고도로 발달된 상징적 사고방식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록 토착어 문자 체계를 되살리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채택한다면 인도네시아인의 고도로 발달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많은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와 세계인에게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언어 기관

일제 치하 기간에 인도네시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1942). 독립 이후 1947년 ITCO (Institute voor Taal en Culture Onderzoek)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언어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다. ITCO는 언어와 문화에 관한 학문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후에 이사가 된 겔드(GJ Geld)가 이끌었다. 겔드뿐만 아니라 호йка스(C. Hooykaas), 푸르바다르민타(WJS Poerwadarminta), 테이우(A. Teeuw), 파어 판 바우덴(PAE Van Wouden), 룰링크(Roolvink) 및 몇몇 네덜란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ITCO에서의 성과로 인해 명성을 얻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 1) 1948년에 2월 28일자 교육문화부령 교수-문화 No. 1532/A에 의거, 족자카르타에 Balai Bahasa(언어의 전당)가 설립되었다.
- 2) 1952년 Balai Bahasa는 인도네시아 대학 어문학부 소속의 Lembaga Bahasa dan Budaya(언어 문화 연구소)로 변경되었다. 이는 같은 해 8월 1일자로 시행된 교육문화부령에 의한 것이다. 연구소는 족자카르타 지부, 싱아라자 지부, 마카사르 지부를 두었다.
- 3) 1959년 Lembaga Bahasa dan Budaya는 6월 1일자 교육문화부령 No. 69626/B/B에 따라 기존 지부의 수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Lembaga Bahasa dan Kesusastraan(언어 문학 연구소)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연구소는 인도네시아 대학 어문학부 소속을 벗어나 교육문화부의 산하 기관이 되었다.
- 4) 1966년 대통령령 75/V/Kep/II/1966에 의거, Lembaga Bahasa dan Kesusastraan는 문화집행위원회총국 산하의 Direktorat Bahasa dan Kesusastraan(언어 문학국)으로 변경되었다.
- 5) 1969년 Direktorat Bahasa dan Kesusastraan은 5월 27일자 교육문화부령 No. 034/1969에 따라 Lembaga Bahasa Nasional(국립 언어 연구소)로 변경되었다.
- 6) 1975년 Lembaga Bahasa Nasional은 대통령령 No. 44와 45, 교육문화부령 No. 079/O/1975에 의거하여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언어 함양 개발 센터)로 변경되었다.

지부의 명칭 또한 족자카르타 언어의 전당, 덴파사르 언어의 전당, 우중판당 언어의 전당으로 변경되었다.

- 7) 1999년 9월 23일자 교육문화부령 No. 226/O/1999와 no. 227/O/1999에 따라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의 14개 지부가 설립되었다. 이들 지부는 반다아체(Banda Aceh), 메단(Medan), 페칸baru(Pekanbaru), 파당(Padang), 팔렘방(Palembang), 반둥(Bandung), 세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 반자르마신(Banjarmasin), 자야푸라(Jayapura), 폰티아낙(Pontianak), 팔랑카라야(Palangkaraya), 마나도(Manado), 팔루(Palu)에 위치한다.
- 8) 2000년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의 명칭이 국가교육부 사무총국 산하의 Pusat Bahasa(언어 센터)로 변경되었다.
- 9) 2008년 벵쿨루(Bengkulu), 방카벨리통(Bangka Belitung), 리아우 제도(Kepulauan Riau), 반텐(Banten), 누사틉가라티무르(Nusa Tenggara Timur), 고론탈로(Gorontalo), 암본(Ambon), 트로나테(Ternate) 등 8개 주도에 지부가 추가 설립되었다.

법령 24/2009는 교육문화부를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는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Pusat Bahasa(언어 센터)는 교육문화부 직속 언어 연구소인 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언어 개발 함양 기구)로 변경되고, 권한도 강화되었다. 이 연구소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언어 사용을 감독하고 함양, 발달시키면서 언어와 문학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BIPA(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된다.

수도인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언어와 문학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이 연구소는 아래의 지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30개 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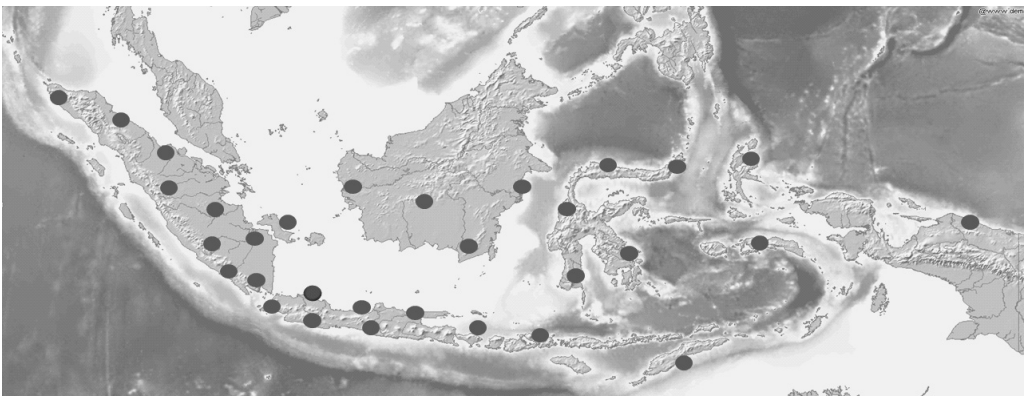


도표 3. 지부의 분포

언어 관련 전문 기관들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의 언어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대학에 설립되고 있는 언어 센터들도 언어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평가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설립한 지역 언어 센터도 전문 기관의 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

4. 교육에서의 언어

전국적으로 국가 교육 체계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교육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토착어 또한 상호 작용의 매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50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실 내 상호 작용의 매개로서의 토착어 사용이 허용되어 왔다. 법령 20/2003의 근간이 되는 1954년의 법령 4, 1989년의 법령 12, 법령 2를 포함하여, 국가 교육 체계에 관한 법령 20/2003과 법령 24/2009는 교실에서의 토착어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초급 교육 단계에서는 특정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토착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와 토착 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조차도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 습득을 보조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 언어로서의 토착어 사용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1990년대에 UNESCO EFA가 천명한 원칙들을 1950년부터 이행해 왔음을 보여 주는 실질적 증거가 된다.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3학년이나 4학년에 이루어지는 공용어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저학년 수업에서의 매개로서 제1 언어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MLE(다중 언어 이용 교육)를 시행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새로운 MLE 프로그램은 2000년대에 UNESCO에 의해 도입되었다.

교실 수업의 매개로서의 외국어(주로 영어) 사용은 법령 4/1950 이후 허용되었다. 그때 당시의 외국어가 지식과 특수 기술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법령 20/2003의 33조와 법령 24/2009의 29조는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매개로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외국어 그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학습자는 외국어 교육의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최종 보고서(논문)를 외국어로 작성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외국어 숙달을 지원한다.”라는 문구는 국제 표준을 갖춘 학교인 (R)SBI에서 폭넓게 해석된다. (R)SBI에서는 4학년 때부터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특정 과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와 종교, 시민권, 역사 및 지역학 등의 수업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에 걸맞게, 교사들은 TOEFL 점수 7.5 이상을 갖추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 구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R)SBI는 다문화 국가에서, 그리고 정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영어와 다른 외국어의 능력 향상을 선도하는 문화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R)SBI의 학생들은 최소한 인도네시아어를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국어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토착어나 모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R)SBI의 학습자와 교사의 외국어 숙달도는 여전히 추정치일 뿐이다. 학습자와 교사의 외국어 능력이 인도네시아어 능력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은 MLE 및 EFA의 원칙과 성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R)SBI는 학생들이 국제 학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증대시키기보다는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 수업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과 학습 활동은 외국어 학습과 같은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어를 교수 언어로 하여 이루어진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작문 연습을 할 때 인도네시아어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해당 과목의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 오류도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언어의 활용 능력 또한 평가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 특히 언어 과목 이외의 교사들도 글을 쓸 때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사용이 훌륭하고 올바른 학생의 보고서에는 사고와 이성의 규칙적인 흐름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관심을 갖는다면, 학생들도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학생들은 상황이나 목적, 장소, 매체, 대담, 독자 등에 따라 언어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보존과 진흥

법령 24/2009는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활동, 즉 언어를 개발하고, 강화하며, 보호하는 활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개발이란 첫째, 어휘를 강화하고 언어 체계를 안정화, 표준화함으로써 언어 자료를 현대화하는 것과 둘째, 언어의 어휘사용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언어로서 인도네시아어의 언어적 지위를 향상하는 노력 또한 포함한다. 언어의 함양 또는 강화는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과 모든 단계의 교육, 훈련, 개선 활동 및 언어 정책을 사회화하는 활동에서 언어를 익힘으로써 사용하는 언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언어 교육과 더불어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공동체에 대한 규범적이고 모범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하고자 한다. 언어 보호(protection)는 문서화, 연구, 개발, 지도 및 교육과 필요 시 저작권 보호의 방법 등을 통해 언어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여기서 말한 발달과 함양, 보존의 대상은 토착어와 국어,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와 문학이다. 이를 행함에 있어, 중앙 정부의 주요 책무가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를 개발, 강화시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 지방 정부의 주요 책무는 우선적으로 토착어에 있다고 하겠다. 각자의 우선적 임무에 더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언어의 개발, 함양 및 보존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개발, 강화, 보호 임무는 법령 24/2009 제41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부여되었다. 정부는 세계화의 필수 전제 조건에 걸맞게 사회국가적 삶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학을 발달, 함양,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 세 가지 의무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언어 기관은 또한 그것의 이행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언어의 개발, 강화와 보호는 또한 법령 24/2009 제42조에 의거해 볼 때, 지방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방 정부는 언어가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삶의 위상과 기능을 충족시키고, 인도네시아 문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학을 개발, 함양, 보호해야 한다. 이는 토착어의 개발, 함양, 보호 책이 인도네시아 공통의 문화와 언어를 분리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인도네시아어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토착어의 개발, 함양 및 보호 역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 정부의 협조 아래 지방 정부 부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 정부는 언어와 문학의 개발, 육성, 보호에 관여하는 각 기관에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언어 정책을 마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언어와 문학의 개발, 강화 및 보호는 (1) 과학과 기술 및 예술의 발달, (2)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3)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에 발맞추어 이행되었다.

언어 활성화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언어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개발되고 육성되어야 할 언어가 있는가 하면, 단지 육성만을 필요로 하는 언어도 있고, 보호만을 요하는 언어들도 많이 있다. 언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재활성화에서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발달과 훈련은 젊은 세대에서부터 구세대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는 말뭉치가 개발되고 그것이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를 개발시키고 교육하는 활동 안에는 보호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력이 낮은 언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부 젊은 세대들에 의해 사용되거나 또는 가족, 종교, 문화 활동의 영역에 국한되어 모든 젊은 세대들에 의해 사용될 때, 재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 활동이 진행되었다. 위기에 처한 언어들은 이러한 보호 활동으로 인해 다시금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새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반대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는 문서화 단계까지 보호 작업이 진행된다.

법령 24/2009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여 국민들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급 정치인 가운데, 대통령과 부통령 및 여타의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외의 공식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로써 세계 전역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인도

네시아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2011년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 할 만하다. 몇 해 전, 포럼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대한 의회와 히다얏 누르 와히트(Hidayat Nur Wahid) 의장의 승인이 떨어졌고,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자랑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령 24/2009가 제정된 뒤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토착어 사용은 두 번째 중요한 언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외국어가 여타의 인도네시아 언어보다 경제적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세 번째로 중요한 언어일 뿐이다. 예를 들면, 법령 24/2009의 제36/UU조에 따라, 과학 서적을 출판할 때는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반면, 특정한 목적의 학문적 저술이나 출판물 또는 특수 분야의 연구에 관한 학술적 저술과 출판물에서는 토착어나 외국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또, 법령 24/2009의 제37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토착어와 외국어 번역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언어 사용에 관한 모든 법령은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조할 언어로는 외국어보다 토착어를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즉, 토착어의 사용이 외국어의 사용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결 론

인도네시아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실 내 상호 작용의 매개어로 토착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 체계의 주요 교수 언어인 인도네시아어의 기능을 보조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5년 만에 국가 법령으로 규정되었다. EFA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모여인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상호 작용 매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토착어의 개발, 함양, 보호에 힘써 왔다. 언어 정치의 측면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가 규제와 관계 부처의 법령, 지역 조례 등의 형태로 토착어 관리에 관한 적절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착어의 발달, 강화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토착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언어를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발달시키며 강화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ALDC는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모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언어학자들과 문화학자들에게 여전히 커다란 도전이다.

참고 문헌

- Casson, Ronald W. 1981.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alim, Amran (ed.). 1976. *Politik Bahasa Nasional=National Language Policy*.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Koentjaraningrat. 1984. *Kebudayaan, Mentalitas, dan Pembangunan=Culture, Mentality, and Development*. Jakarta: Gramedia.
- McMahon, April M.S.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ttle, Daniel dan Suzanne Romaine. 2000.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Arief. 2005.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Protection and Saving the Endangered Languages". Paper of *International Symposium the Dispersal of Austronesian and the Ethnogenesis of the Peoples in Indonesia*. Solo, 28 June-1 July 2005.
- Sedyawati, Edi. 1995. "Keanekaragaman Budaya Indonesia: Kini dan Esok=Cultural Diversity of Indonesia: Today and Tomorrow". Paper of seminar *Fenomena Kebinekaan Bangsa Indonesia Masa Kini dan Kemungkinan-Kemungkinannya di Masa Datang* (Bogor, 16-18 January 1995).
- Sugiyono, Evarinayanti, dan Didi Suherdi. 2010. "On Bridging Student's Learning in First Grades Using Mother Tongue : The Case on Sundanese Classrooms". Paper presented on *A Regional Meeting on the Dissemination of Project Results and Identification of Good Models* (Arnoma Hotel, Bangkok, Thailand, 24-26 February 2009).
- Wurm, Stephen A. (ed.). 2001. *Atlas of the World's Language in Danger of Disappearing*. Paris: UNESCO Publishing.



한국의 언어 보존 정책

– 역사와 과제 –

김세중 Kim Sejung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한국의 언어 보존 정책

— 역사와 과제 —

김 세 중
(국립국어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변 국가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물론 언어이다.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기원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언어지만 오래 전부터 중국어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왔는데 어휘 차용에서 특히 그렇다. 한국어가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왔으며 한국어를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훈민정음의 창제이다.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은 온 백성이 다 알 수 있는 문자가 없음을 걱정하여 백성이 누구든지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백성들은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한문을 배운 일부 계층만이 한문으로써 문자 생활을 하거나 한자를 이용한 이두로써 문자 생활을 하였다. 세종은 중국과 말이 달라서 중국의 문자로는 우리말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백성들의 손쉬운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이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는 자주와 민본이 바탕에 깔려 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어 중국의 뜻을 거역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지배층의 사대주의는 강고했고 신하들은 세종의 새 문자 창제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세종은 문자 창제를 이뤄냈다. 그 바탕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종은 1443년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1446년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의 반포 후 최초로 간행한 책자는 “용비어천가”로서 세종의 선대 조상들의 업적을 칭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후 아들인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보상절”을 짓게 하였으며 왕이 스스로 “월인천강

지곡”을 지었다. 한편으로 한자음을 바르게 적기 위하여 “동국정운”을 펴냈다.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특이한 문자이다. 대개 문자는 다른 문자로부터 오랜 시기에 걸쳐 조금씩 변형되어 형성되어 왔지만 훈민정음은 어느 특정 시기에 갑자기 출현한 문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은 바로 한문을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차츰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한국이 문화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이 어떤 언어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꽃피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두뇌의 인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쉬운 문자를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어의 보전과 진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는 훈민정음을 이용한 서적 간행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각종 불경 언해와 유교 윤리서의 언해, “두시언해”와 같은 문학서의 언해서가 만들어졌다. 흥년에 백성들의 배고픔을 덜 수 있는 구휼의 방법을 담은 언해서의 간행도 있었다.

한글이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에 언문에 대한 강력한 탄압 조치가 내려진다. 연산군은 백성들 가운데서 언문으로 자신의 학정을 비판한 사실에 크게 분노하여 언문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잠시 동안의 일에 그쳤으며 언문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였다. 연산군 스스로가 그 조치를 곧 거둬들이기도 하였다. 연산군은 2년 후 왕위에서 쫓겨났다.

16세기에 중인 출신의 학자 최세진은 한자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학습서인 “훈몽자회”를 지어냈다. 여기에도 한글이 이용되었으며 한자의 교육과 함께 한글이 더욱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한문과 언문이 병존한 시기였다. 지배 계층에서는 여전히 한문을 사용했고 민간에서는 언문이 일기, 편지, 문학 작품 등에서 퍼져나갔다. 그것은 문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구어에서 한국어의 지위는 흔들림이 없었다. 물론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처럼 아예 중국어를 우리의 언어로 받아들이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기도 했으나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들어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어와 문어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구어에서는 한국어가 사용되지만 문어는 사대부층의 한문, 서리들의 이두, 백성들 사이의 언문으로 나뉘어 쓰이던 복잡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성경의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한글을 이용하여 구어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또한 신문의 간행이 시작되었다. “한성순보”는 1883년에 발간되었는데 처음에는 한문 신문이었으나 “한성주보”로 바뀌면서 한글이 쓰이기 시작했다. 1896년 “독립신문”은 전면적으로 한글을 써서 간행되었다.

19세기말 조선은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정부는 쇄국 정책을 오래 펴왔으나 서구 제국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근대적 학교 제도의 실시, 신문의 발행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조치는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시작되었다.

1894년 고종은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조에서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고 하였다. 같은 사항은 이듬해에 개정된 공문식에서도 똑같이 반영되었다.

1895년 칙령 제49호로 발표된 법관 양성소 규정에서도 법관 양성소의 생도를 뽑는 입학시험 과목으로 한문 작문, 국문 작문, 조선 역사와 지리 대요를 규정함으로써 관리 임용 시험에 국문을 최초로 부과하였다. 1896년 학부 고시를 통해서는 초등 교육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오륜행실부터 소학과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 국문, 산술, 그 외에 외국 역사와 지리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국문으로 법령을 작성케 하고 교과서를 국문으로 편찬하는 등 국문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국문에 대한 정리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1907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아뢰고 학부대신 이재곤이 청하여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국문연구소는 정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국어 연구 기관이었다. 국문연구소에서는 1907년 제1차 회의를 열고 1909년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어 국문 연구의정안을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이 의정안에는 아래아를 비롯하여 혼란이 심했던 몇 가지 글자의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세상에 공포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일본에 합병됨으로써 막을 내리고 국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1910년 국권을 강탈하고 보통학교의 교과서 편찬에 쓰기 위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1912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1921년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로 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이도 역시 문제가 제기되어 1930년에 ‘언문철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철자법은 1930년부터 교과서에 채택되었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국문’이란 말이 금지되었으며 ‘조선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이미 1896년부터 ‘독립신문’ 제작에 참여하면서 국어 연구에 몰두하였던 주시경은 국어 연구에 앞장선 선구적 학자였다. 주시경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언어도 적지 않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표기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연구에 매진하였고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단순히 표기법 문제뿐 아니라 중국어에 눌러 있었던 한국어 자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한국어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뜻은 후학들의 임무로 남겨졌다.

1908년 주시경, 김정진 등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가 조직되었는데 1911년 ‘배달말글모음’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3년 ‘한글모’로 다시 바꾸었다가 1921년 ‘조선어연구회’로 변경되었다. 1931년에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49년 이후 ‘한글학회’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비록 일제 강점기였지만 우리말을 지키려는 민간의 노력은 활발하였다. 1926년 훈민정음 반포 480년을

맞아 음력 9월 29일을 가가날로 정해 한글을 기렸다. 다음 해에 기관지 ‘한글’이 간행되면서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민간 학자들의 한국어 수호를 위한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1933년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이어서 1936년에는 ‘사정한 표준어 모음’을 간행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194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하였다. 한편 ‘브나로드’ 운동과 함께 문맹 퇴치를 위한 활동도 펼쳐졌다.

1919년 삼일 운동으로 일제는 문화 정책을 펴서 1920년 한국어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행되고 다수의 근대 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발표되는 등 비록 식민지 상태였지만 한국어는 활발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상황이 급변하였다.

1937년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은 본격화되었다. 국어 상용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일상에서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었다. 일본어로 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전국에 배포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조회와 각종 행사 때에 외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황국의 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갖게 하고 내선일체와 동포 단결의 뜻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1938년에는 내선일체를 목표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공표하였는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구별하였던 것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수정하였다. 또한 소학교에서의 조선어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3년 뒤인 1941년에는 소학교를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로 국민학교로 바꾸었고 동시에 국민학교에서의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였다.

1940년 당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폐간을 명하였고 두 신문은 1945년 12월에야 다시 발행되었으니 5년 동안 한국어로 된 신문이 없는 암흑 시기를 지나게 된다.

더욱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인 1942년 10월 일제는 국어학자 33명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16명을 기소했고 두 명이 감옥에서 옥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조선어학회사건’이라 한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일제 지배의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독립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전승국인 미국이 38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군정청은 1945년 9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일반 명령으로 하달하였는데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국어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첫 걸음’을 교과서로 편찬하였고 이 책이 대량 배포되어 교육에 사용되었다. 일제 말기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여러 해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이 책은 널리 사용되었다. 광복 후 어문 정책은 조선어학회가 주도했고 한글 전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일본어의 잔재를 씻어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였다. 1947년 문교부에서는 국어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생활 어휘를 심의하게 하고 학술용어제정위원회를 두어 전문용어를 심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862개 단어에 대한 우리말을 결정하여 1948년 ‘우리말로찾기’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여 일반인이 사용토록 하였다.

군정 기간 동안 문교부가 문맹 퇴치에 힘을 기울인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1946년 3월부터 계몽 운동을 펼치고 공민학교를 설치하여 문맹 퇴치에 힘썼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광복 당시 문맹률이 77퍼센트였는데 1946년에는 42퍼센트로 줄어들었다 한다.(동아일보 1947. 8. 3. 보도)

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 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이 따르지 않았고 벌칙 조항도 없어서 충실히 시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1949년 동 법률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한글전용촉진회가 구성 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 한글날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0년 정부의 공휴일 축소 조치에 따라 제외되었고 2005년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에서는 빠진 채 남아 있다. 그런데 한글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청원이 결실을 맺어 정부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한글날이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 말기인 1953년에는 한글 파동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맞춤법을 쉽게 바꾸겠다고 한 것인데 2년에 걸친 논란 끝에 대통령이 간소화안을 철회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개정하지 못하였고 1962년 문교부 안에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발족시켜 제2의 한글도로찾기 운동을 벌였다. 또 1965년부터 국어 교과서에 국한 혼용이 실시되었다. 이후 1968년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의 국한 혼용은 1971년부터 한글 전용으로 바뀌어 1975년까지 시행되는 등 잦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에 우리말을 정화하기 위한 국어순화운동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어정화운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그해 8월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인사 등 22명으로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구성되었고, 9월에는 민간 원로 인사들로 국어순화추진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의뢰한 용어의 심의를 위해 같은 해 12월 국어심의회 안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갑자기 사망 함으로써 국어순화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동시에 추진되어 오던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같은 규정의 보완 작업도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정부 차원의 국어 조사 기관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마침내 1984년 학술원 안에 국어연구소가 설치되어 국어 정책을 뒷받침하는 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고 1988년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50여 년 만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임의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국어연구소의 위상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국어

연구소는 1990년 말 문을 닫고 1991년 1월 문화부 소속의 정부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1991년 개원 이후 가장 큰 사업으로 국어사전 편찬에 주력하여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을 간행하였다. 한편 국어 정보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1999년부터 10년 계획의 세종계획을 이끌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도 진력해 왔다.

1998년 한국 사회에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작가인 정을병 씨, 복거일 씨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찬반 양론을 붙여서 사회적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데는 1997년 말 있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관계있다. 이 경제적 위기로 한국은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였으나 세계화에 대한 의식이 커졌고 동시에 압도적인 국제어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공용어로 지정되는 일이 벌어질 기미는 없었고 논쟁에 그쳤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 회의에서 영어를 쓰게 하고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하게 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것은 영어를 한국의 공용어로 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다. 영어는 여전히 외국어의 위치에 있다.

정부 수립 후 국어에 관한 법령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부였다. 이들 법령을 하나의 법에 흡수하고 국어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포함시킨 국어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다. 국어기본법은 2004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공포되고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와 한글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각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에 국어 발전을 책임지는 국어책임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민의 국어 상담에 응하는 일을 맡는 국어상담소(후에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를 두도록 하였다.

2. 한국어 보존과 진흥의 과제

1) 문자 정책

한국어의 문자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오랜 논란이 있어 왔다. 한글이 한국어의 고유문자로 국어기본법(2005년 공포)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만 한자 또한 우리의 문자이니 교육과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논란은 있어 왔지만 한자의 사용이 줄어들고 한글로 국어 생활을 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졌으니 이제는 큰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한자 사용은 그렇더라도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한자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자 교육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 한자 교육이 한자어 이해와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가 상당히 다르고 한자어는 더욱 다른 것이 현실인데 어떤 한자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또 거리의 안내판에 어떤 한자를 써야 할 것이냐 등이다. 중고교 학생들이 한국 한자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전통 한자를 가르쳐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거리의 안내판은 외국인을 위한 것이므로 중국과 일본의 한자와 한자어를 써서 그들에게 편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다.

요컨대 이제 문자 정책에 관한 한 한글 전용이나 국한 혼용이냐의 지루했던 논란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글 전용의 대세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

2) 세계어인 영어에 대한 대응

한국어를 버리고 아예 영어를 쓰자는 영어 공용어화 논쟁은 일단 정리가 되었다. 특정 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계획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영어의 위세와 유용성을 중시하여 한국어 대신 영어를 쓰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 회의 때에 영어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신입 교수를 채용할 때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만 쓰는 유치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영역에 걸쳐 영어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국어 교육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외국어 배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외국어 습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밀려오는 영어의 위세에 대응하여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도 높아져서 몇 가지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대학의 입학시험이나 회사의 입사 시험에 참고하는 일이 늘어났지만 아직 부분적 일 뿐이다. 한국어는 확고하게 한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고 모든 문화, 사회, 경제 활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위세를 갖고 있는 영어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기본 의사소통 도구이자 문화 창조의 도구인 한국어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3) 국어 순화

국어 순화는 해묵은 과제이다. 고유어가 한자어에 눌려서 사라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20세기 들어서 일본어가 밀려 들어오고 동시에 영어도 들어왔다. 일본어는 광복 이후 우리말로 되찾기 운동으로 대체로 제거되었지만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했다. 영어계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운동과 쓰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영어에서 들어오는 외래어가 더욱 늘어났다. 새로운 과학 기술, 상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영어 외래어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유입 속도가 더 빨라졌다.

외래어에는 분명 순기능도 있다. 상당수의 외래어가 이미 있던 고유어나 한자어로 대체하기 어렵다. 그런 외래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별 새로운 뜻도 없으면서 원래 쓰이던 고유어나 한자어를 몰아내는 외래어도 있다. 어떤 외래어가 순기능에 속하는 외래이고 어떤 외래어가 역기능에 속하는 외래어인지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순화가 어려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어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있던 고유어나 한자어를 없애는 말에 대해서는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4) 국어사전의 선진화

한 나라의 언어가 굳건히 지켜지고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어의 사전은 아직 만족할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 편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질적으로 충실한 것은 아니다.

정체불명의 낱말, 용례를 찾기 어려운 낱말이 사전에 많이 올라 있다. 그것이 과연 국어 단어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말들이 사전에 상당수 들어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거꾸로 분명히 쓰이고 있지만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낱말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사전에 오른 말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이다. 그 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낱말이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의 빈도에 차이가 많은데 빈도 정보도 잘 나타나 있지 않다.

한국어를 잘 부러 쓰려면 각 낱말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전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을 더욱 충실하게 다듬어 나가는 일은 앞으로 한국어를 지켜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다행히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부터 표제어 수를 대폭 늘리고 일반인이 직접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에 착수해서 향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5) 불합리한 어문 규정의 극복

한국어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 중의 하나가 불합리한 어문 규정이다. 분명 널리 쓰이는

말이 비표준어로 되어 있고 잘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님’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서 유명한 시에도 나오고 대중가요에도 나온다. 그러나 ‘님’은 비표준어이고 ‘임’이 표준어이다. 또, 순대를 넣어 끓인 국은 한국인들이 흔히 먹는 음식인데 ‘순대국’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이고 ‘순댓국’이 맞춤법에 맞다. 그러나 시장에서 ‘순댓국’이라는 간판은 찾아 보기 어렵고 ‘순대국’이라는 간판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문 규정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 국어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이런 예를 들어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와 현실의 한국어가 다를음을 지적한다.

6) 남북 언어 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음

1945년 남북 분단 이래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다. 그 결과 언어 차이가 꽤 생겨났다. 어휘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문법적 차이도 생겨났다. 사이시옷, 두음 법칙과 같은 맞춤법의 차이도 심각한 상태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는 이상 언어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지면 언어 통일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지금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차이도 양쪽이 합의하여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7) 방언의 사라짐

각 지역의 방언적 특성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표준어의 보급과 방송의 영향 때문이라 여겨진다. 문화적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언적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 뻔죽한 대응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여건 아래에서도 방언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약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8) 욕설, 비속어의 확대

한국어가 영어의 위협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다 해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욕설, 비속어, 차별적 언어 등 문제는 여간 심각하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화된 욕설은 한국어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이 사용하는 욕설의 영향 등이 원인인데 해결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뻔죽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행어, 은어의 증가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표기법을 어기는 현상은 언어 파괴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한국어 수요 증가

한국어는 영어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나라에서 배우기를 선호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특히 한류 열풍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꾸준히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교과서, 사전, 참고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론적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3. 맺음말

한국어의 역사는 유구하다.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사용해 왔다. 중국어로부터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고 20세기 들어서는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특히 20세기 전반기는 한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였다. 한국어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로부터의 위협을 가까스로 극복한 후 한국어는 영어 외래어의 범람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언어 자체를 영어로 바꾸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기업, 대학 등에서 부분적으로는 영어가 한국어 대신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한국어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는 여전히 7,000만 한국인들의 공적, 사적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튼튼히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지위 상승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한국어의 위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한국어는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술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 왔듯이 한국어를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리라 기대한다.



핀란드의 자국어 보호와 진흥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Pirkko Nuolijärvi

(핀란드, 핀란드 언어원)

핀란드의 자국어 보호와 진흥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핀란드 언어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언어의 영역을 점차 침범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 환경에서 핀란드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핀란드 국내에서 벌어지는 스웨덴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본다. 스웨덴어는 핀란드의 다수 언어인 핀란드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소수 언어이다. 그리고 배경 차원에서 핀란드의 언어 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들도 살펴보겠다.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 법령 제정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핀란드의 현재 언어 환경도 간단히 살펴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글은 영어와 대립하고 있는 핀란드어, 핀란드어(및 영어)와 대립하고 있는 스웨덴어에 대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국어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국가이다. 핀란드의 헌법 및 언어법(Language Act)에 따르면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2011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어 사용자는 인구의 90%인 반면에 스웨덴어 사용자는 5.4%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어쩌서 인구의 5%가 사용하는 언어가 90%가 사용하는 언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핀란드의 역사와 언어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의 정치적 역사는 다음과 같이 세 시대로 구분된다. 스칸디나비아 패권과 스웨덴과의 통합 시대(~1809), 제정 러시아 통치하에서 부분적 자치권을 보유했던 시대(1809~1917), 독립 시대(1917~)가 그것이다(McRae 1999). 더 나아가 1995년부터는 핀란드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의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 핀란드는 분단을 겪지 않았었다. 핀란드는 점진적으로 스웨덴 영토에 흡수되었고, 남서부 해안에 스웨덴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핀란드인은 나머지 영토로 뿔어 나갔다. 16세기에 스웨덴이 더욱 중앙 집권화하면서 스웨덴어가 공식 석상에서 주된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식자층 역시 이를 지지하게 되었다. 핀란드어는 루터파 교회(Lutheran Church)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Vikør 2000)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1 언어였다.

1808년부터 1809년까지 스웨덴과 러시아 간에 전쟁이 있는 후, 핀란드의 스웨덴령은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당시의 황제는 비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편이어서 핀란드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언어적 상황도 기존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어는 핀란드의 공식적인 표준어로 남아 있었으며 그 지위 역시 확고하였다. 그 후 1863년, 핀란드어도 공식적으로 스웨덴어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꾸준히 성장을 거듭했다(Vikør 2000). 그러다 핀란드가 독립한 1917년에는 핀란드어가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2. 핀란드의 언어적 환경

전통적으로 핀란드에서 사용되어 온 언어는 핀란드어, 스웨덴어, 그리고 북방 사미, 이나리 사미, 스콜트 사미를 포함한 세 종류의 사미어(Sámi), 루마니아어, 핀란드 및 스웨덴 수화 등이다. 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핀란드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특히 19세기 이후로는 러시아어와 타타르(Tatar)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어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까지 생겨났다. 게다가 지난 30년 동안에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 등 이전에는 핀란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 집단의 구성원들도 핀란드로 이주하게 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화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핀란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다. 핀란드 인구 중 4,863,351명(90%)이 핀란드어를, 291,219명(5.4%)이 스웨덴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1,870명(0.03%)이 사미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 사미족의 인구는 9,000명에 달하지만 그 중 2,000명 미만의 인구만이 사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어, 스웨덴어, 사미어 외의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244,827명으로 전체 인구 중 4.5%이다. 그 중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러시아어(58,331명), 에스토니아어(33,076명), 소말리아어(14,045명), 영어(13,804명), 아랍어(11,252명)로 나타났다(인구 구조 2011).

현재 핀란드인의 다수(60% 이상)는 남서부의 도심 지역과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핀란드의 중추 역할을 해 왔다. 스웨덴어 사용자들은 주로 남부 및 서부 해안과 올란드(Åland)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헬싱키와 그 주변 도시를 포함하는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대부분

1) 핀란드의 전통적인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Myntti & Nuolijärvi 2006 참조.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언어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핀란드어도 스웨덴어도 둘 다 세계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핀란드의 언어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업무 시 자국어 외에 영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역시 영어와 그 밖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해 볼 때 핀란드와 같은 작은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자국어 교육 등의 언어 교육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핀란드의 언어 법령 제정과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프로그램

앞서 언급하였듯이 핀란드의 언어 법령 제정은 국가 차원에서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헌법(Constitution), 언어법(Language Act), 교육 기본법(Basic Education Act)을 중심으로 자국어에 관한 핀란드의 언어 법령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http://www.finlex.fi> 참조). 또한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에서의 핀란드 협약뿐만 아니라 자국어에 관한 언어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협약에서도 핀란드 내 스웨덴어의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헌법

핀란드 헌법(PL 731/1999)은 2000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권리이다. 헌법의 6장에서는 모든 언어 사용자의 원칙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용인 가능한 이유 없이 자신의 성별, 나이, 출신, 언어, 종교, 신념, 의견, 건강, 장애, 기타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헌법은 좀 더 세부적이긴 하지만 1919년의 전 헌법(94/1919)과 유사하며, 1922년의 언어법(148/1922)과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이중 언어 사용은 법령 제정의 역사 안에서 전통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내용은 헌법(§17)에 아래와 같은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다.

핀란드의 국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이다.

법원 및 기타 당국 앞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해당 언어로 된 문서를 수령하는 모든 개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공공 당국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사용 인구의 문화적, 사회적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을 구속하며 다른 법률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언어법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언어법이 1922년에 제정된 기존의 법령을 대체하였다. 이전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법령도 헌법에 명시된 자국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새로운 언어에 대한 권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어법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권리의 실제적인 실현에 있다. 언어법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 없이 정부 당국이 개인의 언어권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어법은 정부 기관을 단일 언어 기관과 이중 언어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언어적 분리는 개인의 언어권과 정부 당국의 언어 의무 양자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언어법은 핀란드의 국민이 법원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일 언어 국가 기관 역시 두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객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기술이 부재한 경우에는 통역사 또는 번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법의 적용은 해당 지역의 언어 환경이 단일 언어 환경인지 이중 언어 환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원(Council of State)은 10년마다 지방 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각 주민의 언어에 관한 인구 데이터 시스템(Population Data System)의 정보를 기초로 각 지역의 언어 환경을 결정한다.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서 사람들은 지방 당국과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단일 언어 사용 지역에서는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핀란드어 단일 사용 지방 자치 단체는 287곳, 스웨덴어 단일 사용 지방 자치 단체는 19곳, 스웨덴어를 우위 언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지방 자치 단체는 12곳, 핀란드어를 우위 언어로 사용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18곳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150만 명의 인구가 헬싱키를 포함한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 당국 또는 지방 당국 등 이중 언어 당국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의 내용 전체를 두 언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이 되는 정보를 두 언어로 제공하면 된다.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산하 기업이 당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언어법의 조항이 적용된다. 행정 업무가 정부 당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될 때도 반드시 언어법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기업에 공무를 이관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이 요구하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언어법의 시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은 매 선거 주기마다 언어권의 구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외에도 사미어, 루마니아어, 핀란드 수화, 기타 언어 관련 사항을 함께 다룬다. 현재까지 두 건의 보고서(2006, 2009, <http://www.om.fi>)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에 다음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언어법은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일반적인 법령이다. 언어법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인구가 더 적은 스웨덴어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의 자국어 관련 법률 제정은 언어법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또는 사회 복지 신청자의 언어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항이 의료 및 복지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교육 기본법, 대학법, 지방 자치법 등의 기타 법규에도 자국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올란드 섬에도 자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스웨덴어와 해당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 제정은 국제적인 관례에 기초하고 있다(올란드 자치권에 관한 법률 (Act on the Autonomy of Åland) 1144/1991).

3) 교육 기본법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인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언어권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은 바로 학교 제도이다. 현재 종합 학교의 교육은 교육 기본법(628/1998)에 규정된다. 해당 법령의 10장은 교육 언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교수 언어, 교과 외 교수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이다.

교수 언어는 사미어, 루마니아어 또는 수화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업의 일부는 학생들의 수업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상기 언급한 학생들의 모어 외의 다른 언어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12장은 모어 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어로서, 교수 언어와 일치하는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사미어를 교육받는다.

각 학생은 종합 학교와 상위 2차 학교에서 자신의 모어로 수학할 수 있다. 아동의 모어를 언급할 때는 가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와 학교 제도는 그들대로 모어 교육 기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 기본법(11장)에 따르면 기본적인 교수요목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과를 포함한다. 모어와 문학, 제2 국어(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외국어, 환경 교과, 보건 교육, 종교 교육 또는 윤리, 역사,

사회 교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체육 교육, 음악, 미술, 공예, 가정 등이 그것이다.²⁾ 지난 10년 동안 종합 학교의 핀란드어 사용 학생들 간에 제1 외국어로서 영어의 지위가 부쩍 높아졌다. 이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스웨덴어나 기타 언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낮아졌음을 뜻한다.

4) 언어 정책 프로그램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자국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으며, 세계화 환경에서 자국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핀란드 언어 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는 1998년에 언어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핀란드 내 스웨덴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창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핀란드어의 미래’라는 핀란드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그뿐 아니라 핀란드 정부는 현재 자국어들을 위한 추가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평가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안 사항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행정, 매체 등 제반 영역에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핀란드는 일찍이 1994년 11월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을 비준했다(<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QueVoulezVous.asp?NT=148&CM=1&CL=ENG> 참조). 해당 헌장의 목적은 유럽의 역사적인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해당 헌장은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공적인 삶에서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헌장에서 언어 권은 양도 불가능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핀란드는 해당 헌장이 핀란드에서 적게 사용되고 있는 공용어인 스웨덴어와,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인 사미어에도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다. 게다가 핀란드는 루마니아어에 관한 조항의 제 1~4문단에 명시한 원칙을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카렐리아어와 핀란드의 기타 비영토 언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유럽 의회(Council of Europe)에 4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유럽 의회의 장관 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는 핀란드 당국에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권고하였다.

2) 기본 교육에서의 언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Nuolijärvi(2012) 등을 참조.

- (1) 구조화된 정책과 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미어 교육을 강화할 것
- (2) 영구적인 언어 보금자리(Language Nest)를 제공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나리, 스콜트 사미어’ 등 특히 위협에 처한 언어들을 보호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 (3) 스웨덴어 및 사미어로 사회,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 (4) 루마니아어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이행하고 루마니아어로 된 교육 자료 생산을 확대하여 루마니아어 교육 기회를 증진시킬 것
- (5)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과 미디어에서 핀란드의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핀란드 내 현장의 적용(Application of the Charter in Finland) 2012

이처럼 상기 권고 사항은 핀란드가 위협에 처한 사미어 및 루마니아어의 상황을 개선할 뿐 아니라 소수 공용어인 스웨덴어 역시 보호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요컨대 이 현장과 유럽 의회의 기관을 통한 전체적인 보고 절차는, 핀란드가 해당 영역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4. 자국어의 현 실태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 장에서는 현재 자국어 집단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핀란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어에 대항하여 핀란드어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핀란드어에 대항하여 스웨덴어와 사미어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핀란드어

핀란드의 다수 언어인 핀란드어는 지난 150여 년간 강력한 지위를 점해 왔다. 그에 앞서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핀란드에서는 스웨덴어가 행정 및 교육 언어로 사용되었었다. 지난 150여 년 동안 핀란드어는 구어와 문어의 차원에서 모두 핀란드 사회의 필수 언어로 자리매김해 왔다. 핀란드어 화자들은 핀란드어를 모국어로 의식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핀란드어를 발달시켜 왔다. 그 덕분에 핀란드에서 모국어인 핀란드어의 지위는 매우 굳건해졌다. 핀란드어는 유럽 연합의 공용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핀란드어는 핀란드의 많은 가정에서 제2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웨덴과 같은 국외 지역에서도 제 1언어 또는 제 2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유럽 및 세계의 언어와 언어 집단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규모가 작은 언어 집단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대학과 학문 분야뿐 아니라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 등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모국어의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2000년대에 이위베스킬레대학(University of Jyväskylä)에서 실시한 핀란드인들의 영어 사용,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Leppänen et al. 2011) 결과, 핀란드 내 영어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가장 널리 학습되는 언어이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가 된 것이다. 핀란드인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영어에 대한 핀란드인의 전반적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영어가 핀란드어 및 문화를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점차 다문화화, 세계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영어 지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핀란드인은 영어와 기타 외국어 학습의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핀란드인은 외국어 학습에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여타의 유럽인(특히 다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차이를 보인다(200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참조).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핀란드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핀란드어 사용,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핀란드어 과학·예술 분야 전문 용어뱅크(Bank of Finnish Terminology in Arts and Sciences), 핀란드 언어원의 업무, 핀란드어 인쇄물 및 매체의 역할 등 핀란드어의 다면적 사용 및 발달을 위한 네 가지 활동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 교육 및 연구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식자층의 핀란드어 실력과 그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핀란드어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식자층은 국제적 활동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출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 고등 교육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핀란드의 대학들은 핀란드어 실력의 중요성과 영어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핀란드에 위치한 12개 대학 중 대부분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신들의 언어 전략 또는 원칙을 수립해 왔다. 여기에서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https://www.helsinki.fi/language_principles TARKISTAN LINKIN 참조)과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이위베스킬레대학(이위베스킬레대학의 2012년 언어 정책, <https://www.jyu.fi/hallinto/strategia/en/university-of-jyvaskyla-language-policy-2012/view> 참조)의 전략을 그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언어적 관점으로 바라본 고등 교육과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기 위한 주요 원칙 및 실질적인 해법이 포함되어 있다.

헬싱키대학은 자체의 언어 원칙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언어 숙련도를 증진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공동체에서 언어는 하나의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대학은 핀란드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및 학문 분야에 있어서 자국어(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의 지위를 보존하고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헬싱키대학의 목표 중 하나는 핀란드의 자국어가 학문 및 교육의 언어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대학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

해야 하며, 새로운 지식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학이 추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헬싱키대학은 외국의 학생, 교수, 연구원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관건은 이 두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 자국어에 대해 대학이 갖는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헬싱키대학은 자국어를 연구 및 학문의 언어로 공고히 하는 것과 대학 내에서 전반적·효과적으로 이중 언어를 상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교육, 행정, 서비스,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자국어를 보다 알기 쉽고 풍부한 언어로 가꿔 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헬싱키대학은 다른 언어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원칙은 서로 다른 언어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대해 우위를 점하거나 다른 언어를 대체하지 않으며 나란히 제시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헬싱키대학은 대학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국어의 지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영어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교육은 다중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어를 통한 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때, 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시행될 수 있다. 학습 지도 과정 중에는 다중 언어 능력의 이점, 그리고 학생의 모어 외 언어가 시험 및 교육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및 학습 목표를 도입할 때는,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2개의 국어로 사용되는 용어를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오랫동안 핀란드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을 사용한 영역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헬싱키대학은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영어의 지배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자국어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즉, 영어가 지배적인 학과목에서도 자국어의 적극적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헬싱키대학은 특히 핀란드의 교육, 사회, 문화적 강화를 증진하는 학과목에서 자국어로 작성된 교재 편찬을 독려하고 있다. 대학은 해당 연구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지식을 모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헬싱키대학은 연구원들이 자국어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과목에서 자국어 용어를 제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대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이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정보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와 관련된 정보 또한 이러한 언어들로 제공되어야 한다. 헬싱키대학의 안내 책자, 이름, 지침서, 표지판, 웹 사이트 등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략적 계획, 정책 프로그램, 기타 주요 문서 역시 모두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발행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헬싱키대학은 원칙적, 실질적으로 삼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삼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대학이 자국어를 책임질 의무를 잊어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학과목에서 이러한 현상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국어와 기타 언어의 병렬적 사용은 헬싱키대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이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이위베스켈레대학은 2012년에 새로운 언어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핀란드어는 국제 대학의 초석이다. 이론과 과업의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핀란드어와 영어를 사용한 학문적 의사소통에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지원이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 또한 자신의 학업에 대해 대중 및 그 분야 전문가 양쪽과 모두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핀란드어로 양질의 표준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구어 및 문어를 통한 학문적 의사소통에 특별히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핀란드로 온 교환 학생들에게는 핀란드어와 핀란드 문화를 통한 수업이 제공되고 있다. 이 대학은 가장 뛰어난 국제적 포럼에서 논문을 발표하도록 격려하면서, 핀란드어로 그것을 출간하고 핀란드어를 학문을 위한 언어로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 학술 전문 용어를 다룸으로써 핀란드어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다. 핀란드어 과학, 예술 분야 전문 용어 은행(<http://tieteentermipankki.fi/wiki/Termipankki:Project>)는 핀란드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영구적인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종합적인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AOF(Academy of Finland)와 헬싱키대학이 2011년부터 5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언어 정책과 사회 과학에 기여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대규모 학술 전문 용어 은행은 연구자, 통역사, 언론인,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해 핀란드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술 용어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종합적인 논의와 연구의 가능성이 향상된다.

전문 용어는 예술과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식물학, 법학, 언어학 등 3개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는 주요 학회로는 핀란드 변호사 협회(Suomalainen Lakimiesyhdistys), 핀란드 바나모 생물 학회(Suomen Biologian Seura Vanamo), 핀란드어 연구 학회(Kotikielen Seura), 기타 언어학 관련 학회 등이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학회들은 100년 이상 동안 자신들만의 특수한 용어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서도 해당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탄탄한 전통과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은 광범위한 위키(Wiki) 편집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자리에든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의 허가를 받아 이 전문 용어 은행에 기존의 용어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어 학습 학회(the Federation for Finnish Learned Societies)와 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예술, 학문 전문 용어를 위한 자원 봉사(Tieteen termistötalkoot)’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핀란드어 학습 학회와 대학에 소속된 사람으로,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이 전문 용어 은행 프로젝트는 핀란드 언어원(Kotus)과 핀란드 전문 용어 센터(The Finnish Terminology Centre TSK) 등에 소속된 전문 용어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언어 자원 컨소시엄(Finnish Language Resource Consortium, FIN-CLARIN)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해 유럽의 인프라인 CLARIN- ERIC 및 ESFRI과도 연계되어 있다.

세 번째로, 핀란드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핀란드어의 특질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 핀란드는 이러한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어에 특화된 국가적 전문 기관인 핀란드 언어원(Kotimaisten kielten keskus 또는 Kotus / Institutet för de inhemska språken)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업무는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계획을 포함하며, 그 활동은 이러한 언어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미어, 루마니아어, 수화 위원회의 업무 조율 또한 해당 기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 언어원은 언어와 명칭 계획을 수행하고,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사전을 편찬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 말뭉치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연구소는 핀란드의 언어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네 번째로, 모국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언어를 다방면에서 구어, 문어로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프로그램, 소설, 그리고 새로운 소셜 미디어에서처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어로서의 핀란드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핀란드어의 보호 및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2) 스웨덴어

세계의 다른 많은 소수 언어와 비교해 보면, 핀란드 내의 스웨덴어 사용 인구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해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이 항상 스웨덴어만으로는 영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언어 법령 제정 적용에 관한 자체 보고서(2009년 *언어 법령 제정에 관한 정부 보고서* (*Report of the Governmen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참조)에서, 모든 정부 기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사회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를 제시하였다. 정부 당국은 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언어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핀란드에서는 단순한 언어 법령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당국의 운영과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언어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기본적인 언어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 정부는 2006년의 자체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의 체계적인 이행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은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지방 자치 당국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내 문서에서 언어 법령 제정의 이행을 통합함.
- 시민의 언어권이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및 인사 규정을 계획하고 이행함.
- 언어 법령의 준수를 관리, 감독함.
- 이러한 과정에서 두 국어의 사용이 어떻게 증진되는지에 대해 감시, 평가함.

고위 공무원들과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은 언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대형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특히 스웨덴어로 운영하기 위한 언어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의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언어 법령 제정과 언어적 권리에 대한 정부 당국과 시민들의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 정부에 따르면, 언어 법령의 적용과 언어적 권리 이행을 위한 정부 당국의 권한은 기존 감시 도구의 일환으로서 명료해져야 한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은 2009년에 지난 3년 동안 서비스 체인의 다양한 단계에서 언어 법령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스웨덴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특별한 자체 평가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 복지 및 의료 서비스의 기능을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주로 고객들의 구두상 피드백에 기초하고 있다. 서부 해안의 오스트로보트니아(Ostrobothnia)에 위치한 모든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 또한 정기적인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 조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서비스 지점에서 수행되며, 지방 자치 단체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서비스 제공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을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정부 당국은 그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서비스 지점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서비스 지점에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헬싱키에서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도록 업무 교대 및 업무 분배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 지점에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은 사회 복지 및 의료 부서의 직원들에게 언어 능력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들에는 이중 언어 활동을 조직화하거나 언어 능력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한 공통적인 관례는 없다.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잘 보호된다. 스웨덴어가 다수 언어인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핀란드어 사용자들 또한

다수 언어로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스웨덴어 사용자들보다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핀란드어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욱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어 사용 인구의 언어적 권리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스웨덴어 의사소통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경우, 스웨덴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행정 당국의 서비스는 핀란드어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상당하다.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권리는 오스트로보트니아에서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 스웨덴어 사용 인구가 많은 핀란드 남부가 언어적 권리의 확보가 여전히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다.

학교는 스웨덴어 사용 아동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 체계는 1년 동안의 자발적 예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는, 전체 연령 집단을 위한 9개년의 기본적인 교육(종합 학교), 직업 관련 및 일반 교육으로 구성된 고등 2차 교육(3년), 대학과 폴리테크닉이 제공하는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국어가 두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핀란드의 학교 체계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이 둘 모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게 된다.³⁾

종합 학교에서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핀란드어를 배우는 것보다 스웨덴어를 더 적게 배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6년을 보낸 후에도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덜 유창함을 뜻한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 사용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핵심 교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스웨덴어 외에 스웨덴어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낫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스웨덴어를 핀란드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 언어와 소수 문화를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수 언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스웨덴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스웨덴어 구사 능력 역시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스웨덴어를 통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스웨덴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언어 집중 모델을 따라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스웨덴어 집중 교육이 1987년 바사(Vaasa)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91년에는 수도권 지역 등 기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 이러한 교육이 도입되었다. 현재 유아원, 유치원, 종합 학교에서 스웨덴어 언어 집중 교육을 제공

3) 1차 언어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학교를 선택한다. 물론 다중 언어 또는 국제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17개이다(Kangasvieri et al. 2011, 47-49). 게다가 중국어로 부분적인 언어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일부 학교에 의해 최근에는 새로운 기회도 생겨났다.

총체적 초기 집중 교육은 핀란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3세~6세 사이의 유아원/유치원 아동부터 시작하여 종합 학교의 9학년까지 이어진다. 2009년 가을, 탁아소 또는 유치원의 집중 교육 아동은 958명이었으며 종합 학교 1학년~6학년의 집중 교육 학생은 2,184명, 종합 학교 7학년~9학년 사이의 집중 교육 학생은 838명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http://www.uwasa.fi/kielikylpy/lyhyesti/suomessa/>; Kangasvieri et al. 2011, 23). 이 수치는 핀란드 내 핀란드어 사용 학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핀란드의 많은 지역에서 스웨덴어(그리고 핀란드어) 집중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교사의 수가 적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스웨덴어 집중 교육 학급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바사대학(University of Vaasa)이 핀란드에서의 언어 집중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대학에서도 언어 집중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언어 집중 교육은 교육 대상 언어에서만 아니라 모어와 기타 주요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행동을 통한 언어 학습 방법 또한 다른 학급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종합 학교에는 스웨덴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벤스카 누(Svenska Nu, Swedish Now) (<http://www.svenskanu.fi/>)로, 핀란드어 사용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조기에 스웨덴어를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웨덴의 청소년 문화를 핀란드 교실에 도입하고, 앵글로 색슨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스웨덴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쉽고 좋은지를 보여주며,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핀란드어 사용 학생들의 스웨덴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교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 또한 마련되었다.

스벤스카 누(Svenska Nu)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양한 협회들, 스웨덴-핀란드 문화 센터인 하나사리-하나홀멘(Hanasaari-Hanaholmen), 특정 민간 후원자 등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내의 모든 핀란드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서 스웨덴어 교육을 지원하는 주된 동기는 이념적이면서도 실질적인데, 다수 구성원들의 소수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소수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중 언어 환경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스웨덴어 소수자의 관점에서는 핀란드 내 스웨덴어 학교의 수준을 핀란드어 학교만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란드에는 오보 아카데미(Åbo Akademi)와 스웨덴 경제 학교(Svenska Handelshögskolan Hanken) 등 두 개의 스웨덴어 대학이 있다. 특히 스웨덴 경제 학교(Hanken)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어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점점 더 많은 수업과 프로그램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핀란드어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여 연구 결과가 영어로만 발표되고 있다. 대학법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 학교는 스웨덴어 대학이지만, 머지않아 핀란드에는 오보 아카데미만이 스웨덴어 대학으로 남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핀란드 내 스웨덴어 학교 체계에 외에 스웨덴어 사용 집단은 그들의 문화를 스웨덴어로 향유할 수 있다. 스웨덴어 극장, 스웨덴어 문학, 스웨덴어 신문과 잡지, 스웨덴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 스웨덴어 교구, 스포츠 클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핀란드 내 스웨덴 문화의 지속을 보호, 지원하고 있다.

5. 토 론

본고는 핀란드의 자국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란드에서 사용하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둘 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언어 공동체는 현재의 상황과 영어와 같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압박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핀란드 내 학교에서 일상의 일부분이며, 특히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약 4,000명의 이주 아동들이 헬싱키의 종합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언어 집단은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에스토니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집단 등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국어의 수는 약 40여 개이다(<http://www.helsinki.fi>). 교육 기본법 또한 교육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 학생들의 언어로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 당국들은 아랍어, 소말리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에스토니아어 등으로 이중 언어 또는 모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소수자들의 균형 잡힌 밝은 미래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우리는 다양한 모어를 보호함으로써 자국어 학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이 언어들을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회에 속한 다른 집단의 언어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익히고 사용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공적 활동 및 사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가 언어 권리와 모어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의 언어 사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한 언어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결정권자이다.

참고 문헌

- Application of the Charter in Finland* 2012.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and Minority Languages. 4th monitoring cycle. A.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Charter. B.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application of the Charter by the Finland. Strasbourg.
- Kangasvieri, Teija, Miettinen, Elisa, Palviainen, Hannele, Saarinen, Taina & Ala-Vähälä, Timo 2011. *Selvitys kotimaisten kielten kielikylpyopetuksen ja vieraskielisen opetuksen tilanteesta Suomessa. Kuntatason tarkastelu*. Jyväskylän yliopisto. Soveltavan kielentutkimuksen keskus.
- Kielilaki / Språklag [Language Act] 423/2003.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3> [referred: 21 June 2012].
- Leppänen, Sirpa, Anne Pitkänen-Huhta, Tarja Nikula, Samu Kytölä, Timo Törmäkangas, Kari Nissinen, Leila Kääntä, Tiina Räisänen, Mikko Laitinen, Heidi Koskela, Salla Lähdesmäki & Henna Jousmäki 2011. *National Survey on the English Language in Finland: Uses, meanings and attitudes*. eSeries. <http://www.helsinki.fi/varieng/journal/index.html>.
- McRae, Kenneth D. 1999. Conflict and Compromise in Multilingual Societies. Finland. With the assistance of Mika Helander and Sari Luoma. Vol. 3. Helsinki: Finnish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 – Suomalaisen tiedeakateman toimituksia 306, Humanior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Myntti, Kristian & Pirkko Nuolijärvi 2006. The Case of Finland. In Spiliopoulou Åkermark, Sia, co-editors Leena Huss, Stefan Oeter & Alastair Walke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ational debates: Minorities around the Baltic Sea*. Ålands Islands Peace Institute, Mariehamn, 171–225.
- Nuolijärvi, Pirkko 2012.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in Finland. In: Stickel, Gerhard (ed.), Annual Conference 2011 of EFNIL in London.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Subject choices of students [e-publication].
ISSN=1799-1056. Subject choices of comprehensive school pupils 2010. Helsinki: Statistics Finland.
http://www.stat.fi/til/ava/2010/02/ava_2010_02_2011-05-25_tie_001_en.html. [referred: 23 June 2012].
- Opetushallitus – Utbildningsstyrelsen –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 The Curriculum.
http://www.oph.fi/english/education/basic_education/curriculum
[referred: 21 June 2012].
- Opetushallitus – Utbildningsstyrelsen –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 The Curriculum.
http://www.oph.fi/english/english/mobility/testing_language_skills
[referred: 21 June 2012].

Perusopetuslaki/Lag om grundläggande utbildning 628/1998.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628> [referred: 25 June 2012].

Population Structure 2011. Statistics Finland. vaesto.tilasto@stat.fi

Report of the Governmen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2009. Ministry of Justice. Helsinki.

Suomen perustuslaki / Finlands grundlag [Finnish Constitution]. PL 731/1999.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9> [referred: 25 June 2012].

Vikør, Lars S. 2001. *The Nordic Languages. Their Status and Interrelations*. Oslo: Novus forlag.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로서의 국어

스카코프 마하트 Skakov Maxat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로서의 국어

스카코프 마하트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도 입

국어는 모든 국가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현재 210개의 국가에서, 50억 이상의 인구가 세계 도처에서 1,651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다. 카자흐어는 투르크 어족에 속하는데, 약 2억의 인구가 30개의 투르크 어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어를 알고 이해하며 국제 관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구소련에서 사용하던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에스토니아어, 몰도바어,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야어, 타지크어 사용자들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럽에서 발달한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 카자흐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언어이자 다양한 언어적 기원으로부터 비롯된 언어이다. 또한 강한 잠재력을 보유한 언어이며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다.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세계의 문명국들에서는 국어의 지위가 매우 확고하며 그 우월성과 권리가 법에 의해 합당한 보호를 받는다. 국어를 소유하고, 국가의 토대로서 국어를 확립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해 투쟁한 나라들이 언어적 독립에서부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봐도 국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독립 역시 공동체 내에서 언어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언어 정책면에서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왔다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카자흐어가 결코 쉽게 국가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했고, 애국적인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국가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카자흐어의 이러한 발전은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아비술리(Nazarbayev Nursultan Abyshuly)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2010년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2020년 국가 개발 전략을 분석하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국가의 독립을 확고히 하고, 카자흐 민족의 국가적 번영을 위한 길을 닦으며, 언어와 문화가 널리 융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통합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다음 세대의 번영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번영시키고 언어의 지위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국가 차원의 언어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어 개발 전략은 국가 통합의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에 승인한 헌법에서 카자흐어는 주권 국가 역사상 최초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1.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 개발 단계

일반적으로 국가 수립과 발전의 역사에서 언어 정책은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언어 정책을 펼칠 때에는 국가의 어느 구성원들(소수 민족, 사회 그룹)이든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민족 국가일수록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말, 독립 국가들 사이에서 수립된 카자흐스탄은 역사적 운명으로 뭉친 여러 국가 대표들이 연합한 다민족 국가로서 국가의 지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카자흐스탄의 언어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언어 개발 과정은 다음의 몇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첫 번째 단계: 1988~1994

- 카자흐 민족을 포함한 인종 집단의 민족적 의식의 각성 및 재발전

이 단계에서 소련 재건 및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관련하여 일어난 민족주의 과정으로 인해, 모국의 역사의 주인인 카자흐 국민들 간에 광적인 민족의식이 생겨났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민족적 애국심 및 과도한 민족주의적인 동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자흐 국민들에게 이 단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카자흐 국가의 많은 대표들이 카자흐어 쪽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카자흐 국민들의 민족의식의 발전이 국가 내 다른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전에 연방 국가 몇몇은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대립을 야기했고, 또한 언어 논쟁에서 편파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이 단계에서, 언어 개발에 관한 규범적이고 법적인 원리의 기초도 세워졌다.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언어 관련 법률은 1989년 9월 22일에 최초로 승인되었고, 카자흐어는 국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이 날짜는 이후 카자흐 국민의 언어 기념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는 주권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1993년 최초 헌법에 나타나 있다.

2) 두 번째 단계: 1995~2000

- 국제적 호의와 화합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의 정책적인 지원과 새로운 헌법의 승인에 기인한, 1995년의 언어 개발 기초 단계

1995년, 카자흐 국민 의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카자흐 국민 언어 개발 정책에 따라, 적절한 사회 언어학적인 공간 창조와 민족 그룹의 언어 개발 문제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1996년 11월 4일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언어 정책 구상’이 대통령령으로 승인되었다. 카자흐스탄 언어 정책의 방향은 이 구상에 잘 설명되어 있다. 1998년에 언어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최초의 정부 프로그램(1998~2000) 실행을 위한 주요 절차가 승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와 기타 언어 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부족 및 목적 실행과 관련된 다른 의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역할을 수행할 카자흐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러시아어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하며 또한 민족 언어 개발 방향을 제시할 뚜렷한 정책의 방향은 이때부터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세 번째 단계: 2001~2005

- 이 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언어 사용 및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어 정책 전략 방향의 실행과 관련한 강력한 절차이다. 국어 사회 통신 서비스의 수립과 확장, 러시아의 일반적인 문화 서비스 보존, 소수 민족 그룹 언어 개발 논점이 주요 방향이다.

2006년 언어 정책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일단 이 단계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 및 중앙 국가 기관에서의 사무 업무 일정을 국어로 바꾸는 임무와 관련이 있다. 또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카자흐스탄’에서 다룬 ‘언어 통합’ 문화 프로젝트의 실현과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현재 언어 정책의 주요한 방침 중 하나는 사무 업무에서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정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집행 기관의 행정 언어는 2010년 초부터 국어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짐은 물론, 국어의 지위에 따르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국어를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국어의 사용 영역을 확장하는 주요 이유는 국어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무렵 카자흐스탄에서는 고유 명사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방침에 대한 규제 및 법적 토대가 이미 수립되어 있었지만,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고유 명사 규정과 관련한 이 분야의 작업 수행은 별도의 법률 채택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언어 정책 방침 중 하나는, ‘언어 통합’ 문화 프로젝트의 수행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이 대통령령에 따라 세 개의 언어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주된 흐름은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카자흐어를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문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러시아어를 보존하는 문제도 고려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2.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로서의 국어

현재 국가적 측면의 언어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민의 권리에 따라 실행된다. 이는 모든 소수 민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의 언어, 그 밖에 교육과 문학 언어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는 정신적 차원에서 국가 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카자흐스탄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과제이며, 언어를 통해 사회생활과 경쟁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은 기본 과제의 수행에도 반영되었다.

국어 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넓어졌다. 카자흐어로 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학교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국어를 배우려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성인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었다. 아스타나와 알마티를 비롯해 공화국 내의 모든 지역에 지역 국어 교육 센터가 설립되었고, 국어 교육 통합 시스템도 형성되었다. 현재 130개에 달하는 국어 교육 센터가 지역과 시에서(국가 교육 센터-57, 비국가 교육 센터-73)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문서를 국어화하는 작업 역시 시행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국어를 이용한 문서 검열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중앙 및 지역 기관에서 채택되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중앙 및 지역 기관의 82%가 국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어 교육 방법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2011년에 10가지 종류의 러시아-카자흐 다분야 관용 표현집 백만 부가 출간됐고, 그 후에 “카자흐 문학 언어 용어집”(15권), “전 세계 어린이 문학 보고” 시리즈(15권), “동화의 세계”(60권), “카자흐 어린이 문학 대표 고전”(5권), 오디오 북 등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또한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기술적 접근을 강조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가 개설되어,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다(www.til.gov.kz). 이를 통해 20종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들의 국가적 분포는 주로 터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다.

국어 통신 서비스는 국가 대중 매체 콘텐츠 안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50% 이상의 전자 대중 매체와 인쇄 매체에서 카자흐어가 사용되고 있다.

해외 거주 동포와 문화적인 유대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실시되고 있다. 해외 거주 동포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지적인 기회, 모국어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 개발은 카자흐스탄 국가 정책의 기초이다. 언어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은 국제 관계와 민족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언어의 풍요로움은 언어에 내재해 있으므로 언어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은 카자흐스탄 헌법에도 잘 반영돼 있다. 즉, ‘카자흐스탄 국민의 언어 개발 및 교육 조건 형성을 위한 국가적 배려’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카자흐스탄에는 8,000개에 달하는 중등 교육 기관이, 그 중 약 50%는 카자흐어를 가르치고, 26% 이상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다른 26%는 둘 다 가르친다. 우즈베크어, 위구르어, 타지크어 및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다.

국가는 가능한 한 모든 민족의 대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 모든 지역에서 각 민족의 문화와 모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요일 특별 교실이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며,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30개 민족어를 사용하는 190개 이상의 일요일 특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여러 민족 대표들에 대한 존경심은 카자흐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이자, 시민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국어를 배우는 소수 민족 대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1,000명 이상의 소수 민족 출신자들은 카자흐어를 완전히 익힌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국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국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어를 자신의 국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중인 언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간 언어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은 1년에 2~3번 정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분석은 단지 언어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인구 통계학 및 유목민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카자흐어와 카자흐 포털 이용에 관한 작업은 새로운 정보 기술의 영역 내에서 개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에 그리고 카자흐 이주자 집단 내부에 카자흐어로 된 책을 공급하기 위해, 일단 인터넷 상점 개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문명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한다면,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은 풍부한 언어 보존에 초점을 맞춘 국어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확신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은 언어를 배우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중국은 언어 통합이 국가 통합이라고 믿는다. 말레이시아

에서는 국어의 국가적 지위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품을 수 없다.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어의 국가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언어에 관한 특별법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헤브라이어와 아랍어는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유대인들은 4천 년 동안 헤브라이어를 사용해 왔고, 복음서도 헤브라이어로 되어 있다. 헤브라이어를 아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시민의 의무는 아니다. 헤브라이어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배우면 된다.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발트 해 부근 국가들의 소수 민족을 위한 정책, 언어 교육, 역사·문화·전통 및 관습 보전을 위해 채택한 법령, 공동 수행 작업 경험 등은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물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는 여전히 소수 민족에 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다민족과 관련된 문제를 힘이나 압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소수 민족 정책도 평화적이어야만 한다.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단지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 언어를 보존하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의 건설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언어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언어 사용과 개발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미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국가 통합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로서 폭넓은 국어 사용을 규정하는 언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다.

국가 통합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로서 프로그램의 모든 정책은 국어의 발전을 가장 중시하면서, 공화국 시민의 언어 및 정신·문화적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자 한다. 그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문서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일종의 규범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 명시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몇몇 방침은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모든 시민이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 창안 작업을 기획한다. 그래서 국어 교육에 따른 통합된 표준 기술에 대한 준비, 평점에 따른 서비스 평가 및 국어 교육 인가 시스템 준비, 국어 교육의 독려를 위한 시스템 창안 등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어에 관한 평판을 높이기 위한 작업 수행과 필요성 및 수요 확대를 고려한다.

셋째, 카자흐어 보존 개선 및 체계화를 통해, 카자흐 국민의 말하기 문화 개발, 카자흐어 쓰기 개선 및 언어문화 개선이 이루어지는 언어 환경 창조를 목표로 한다.

넷째, 카자흐스탄 국민의 언어 능력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어의 기능을 보존하고, 소수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보존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영어와 기타 언어 교육에 관해서도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시한 목표의 실행을 통해 2020년까지 다음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017 - 국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비율은 80%가 될 것이고, 2020년에는 95%까지 증가할 것이다.

2020 - 러시아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비율은 적어도 90%가 될 것이다.

2020 - 영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비율은 약 20%가 될 것이다.

결 론

2011~2020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언어 사용 및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은 앞으로 10년 동안 실행될 것이다. 2020년에 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비율을 95%까지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의 과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한다면, 현재 국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모든 중앙 및 지역 집행 권력이 집행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아비술리 대통령은 “애국자는 자신의 모국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자신과 민족을 믿으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역사, 모어, 출신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입장은 민족적 이기심이 아니라 민족적 애국심이다. 우리는 다민족과 다민족어를 지지한다. 그것이 모든 민족 대표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오랜 세월 등한시한 모어를 존중하며 그것을 심도 있게 아는 동시에, 모어를 배우면서 그것에 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민족의식이 민족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주요한 뿌리이자 평화의 토대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국어의 운명은 국어에 대한 각 민족들의 긍정적인 인식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Khalel Dosmukhameduly는 “언어의 무기는 출판사와 학교이다. 출판사와 학교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매우 용감한 무기이다. 출판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런 식으로 국가에 침투하지 않는다. 출판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올바른 언어라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풍요롭게 하고 번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과거의 말이지만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카자흐어가 될 것이고, 언어의 지위는 언어가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에 진출할 경우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카자흐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다. 인터넷상에 개설되는 카자흐어 사이트들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카자흐어로 된 사이트의 방문자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카자흐어가 사용되는 공개 토론방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쇠가 달궈졌을 때 두드려라’라는 속담과 같이

이러한 현재 추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현재 우리는 법률 개정에 반영될 변화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언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추진해 갈 언어 정책 전문가, 실무 집행자 그리고 국회 의원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항상 민족의 언어가 민족의식, 민족적 명예의 고양, 그 필요 수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독립의 정신이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현재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 개발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완전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어가 카자흐스탄의 유일한 모어라는 관점을 버리고, 카자흐어가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 민족에게는 모어이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두 번째 모어가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든 기관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그들을 자극하고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국어 사용을 장려할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국어를 일상 사회 언어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소수 민족 대표들이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수 민족 대표들에게 국어의 사용을 장려할 뿐 아니라, 국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대표들을 국가 기관에 더 많이 고용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 공무원의 국어 교육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 공동체에 대해 국어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문화 협회 간의 돈독한 공조 작업, 지적인 사회 복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젊은이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국가 기관, 서비스 분야, 권리 보호 기관 및 법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국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 있고 복합적인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제1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키릴 문자의 로마자화는 카자흐 문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제안은 승인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것은 무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언어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로마자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긴 과정이며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문자 문제를 더욱 철저히 연구하고 국가와 언어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어의 풍부한 단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더 많은 토론거리가 있다. 주요 논점은 풍부한 언어적 자산을 한 데 모아 컴퓨터에 기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며, 사용 영역을 결정하고, 어휘 및 표현법 등을 보존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언어를 보존하고 컴퓨터를 통해 저장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문명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어의 필요성은 커져야 하고, 국어는 매력적이어야 하며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언어를 배워야 한다. 모든 카자흐 시민이 자신의 경력을 쌓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고민한 뒤 자신 있게 ‘카자흐어가 국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진정으로 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시민들이 국어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을 늘리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 작업을 능숙하게 실행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우리는 교사와 직원을 늘리기 위한 지역 언어 관리 권한을 이용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요소는 정보 기술에 착수하는 것이다. 전자책을 사용하는 언어 학습자, 원격 교육에 대한 대책 등의 활용 및 준비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영역의 작업 개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어의 사용 영역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정책을 수행할 때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해외 거주 동포를 돕는 것이다. 이 논점은 언어 정책 방침 중 하나로 지정될 수도 있다. 해외 거주 카자흐 동포들이 겪는 현재의 주요 문제는 카자흐어를 배우는 일이다. 많은 국가에서 카자흐어 교육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가 확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된 장애물은 사회 환경 및 실제 생활 상황에서 카자흐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카자흐어는 해외 동포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동포에 대한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거주 카자흐 시민 중에서 카자흐어 교사를 뽑고, 체계적으로 카자흐어 능력 개선 과정을 실시하며, 카자흐 대학에서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우수한 학생 가운데에서 카자흐어 교육 지원자 그룹을 조직하고 업무를 할당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육 시설, 교재, 방법론, 이주자 국가의 교육 및 언어 영역에 기초한 용어집 등을 준비하고 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카자흐스탄의 언어적 환경은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민족의 성장과 함께 마련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언어적 환경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수 없다면, 그 언어를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의 ‘장애물’은 이러한 언어적 환경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동포들이 특출한 지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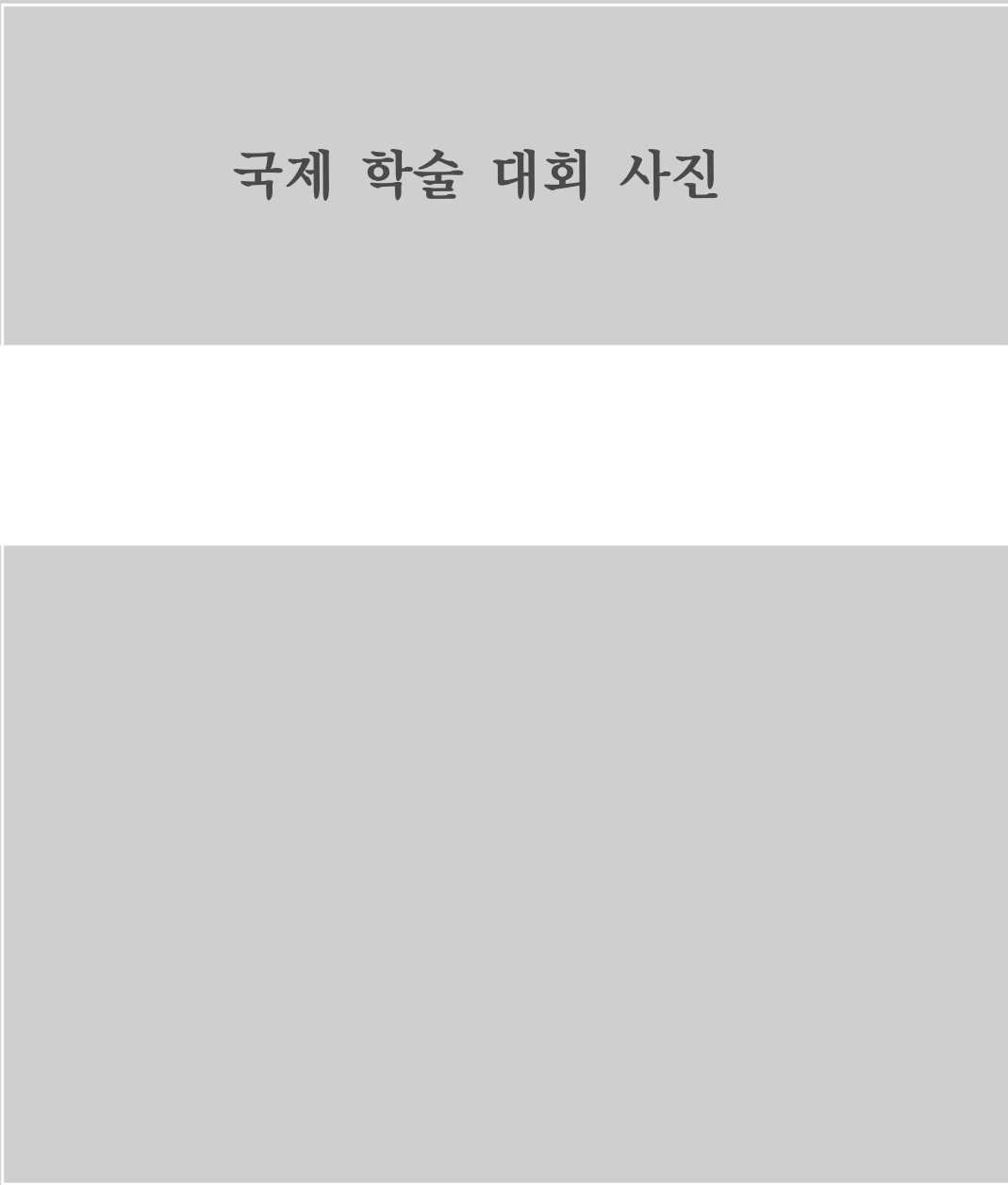
차지하게 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언어를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카자흐어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도 같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귀환자들을 다른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시키는 문제가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카자흐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세우고 카자흐어 학교, 유치원 등을 반드시 개설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New Kazakhstan in new world» to Kazakhstan people. 2007, «Astana poligraphy» JSC, 66 page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Development of Kazakhstan peoples' economic condition- main purpose of state polisy» to Kazakhstan people. 2008, «Elorda» poligraphy, 23 page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New decade - new economic development - new possibilities of Kazakhstan» to Kazakhstan people. 2010, «Astana poligraphy» JSC, 37 pages.
- The law of the RK «On Language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the 6th of July, 1997.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1993.
- The summary of language poli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4th of November, 1996.
- B. Khasanuly, Deep history of the language policy. «Mother language» newspaper, the 1st of July, 1993.
- S. Orazalinov, If heart will open its eyes. Almaty, «Dauyr» poligraphy, 2001.



국제 학술 대회 사진





기조연설을 하는 로버트 필립스 교수



발표를 경청하는 각국 발표자와 청중들



종합 토론



민현식 국립국어원장과 각국 발표자 및 관계자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초판 인쇄 | 2014년 9월 15일

초판 발행 | 2014년 9월 15일

지은이 로버트 필립슨 외

펴낸이 민현식

찍은 곳 크리홍보주식회사

(110-0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4

펴낸 곳 국립국어원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누리집 www.korean.go.kr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37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4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s reserved.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21-01

국립국어원 2014-01-17

